

## 2023년 제5차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

◆ 일시 : 2023. 10. 27.(금) 14:00 ~ 16:53

◆ 장소 : 문화본부 4층 회의실

◆ 참석자 (12명)

위원장 : ○○○

위 원 : ○○○, ○○○, ○○○, ○○○, ○○○, ○○○, ○○○,  
○○○, ○○○, ○○○, ○○○

배석자 : ○○○ 과장, ○○○ 팀장, ○○○ 주무관

◆ 심의안건 (총 35건)

- 서울시 지정문화재 보존처리계획 심사 : 4건
- 서울시 지정문화재 사전 심의 : 20건
- 국가 지정문화재 사전 심의 : 3건
- 국가 등록문화재 사전 심의 : 3건
- 서울시 지정문화재 지정 심의 : 3건
- 2024년 서울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선정 검토 : 2건

(개회)

○ 위원장 : 위원의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 조례」제9조의2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은 심의의결시 미리 배부해 드린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신 위원께서는 간사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 위원의 제척·회피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 조례」제9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됩니다.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고,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할 의무가 있습니다.

○ 위원장 : 기피 신청에 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 조례」 제9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본 위원회 참석 위원 중에서 이번 심의와 관련해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께서는 기피 신청할 위원이 있습니까?

○ ○○○ 과장

그러면 문화재위원회 동산분과 5차 회의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전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게 저희 심의 안건 중에 서울시 문화재 전문위원님과 前 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님이 밖에서 대기하고 계신데, 그분들 먼저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정문화재 사전 심사에 보시면 4번, 19번, 20번이 ○○○ 님이 하실 건이고 14번, 15번, 16번이 ○○○ 님이 하실 건입니다. 그래서 보존처리 심사가 끝난 다음에 지정문화재 심의에는 그분들이 먼저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봉은사 사자도 안건 심의하겠습니다.

## ■ 서울시 지정문화재 보존처리계획 심사

□ <봉은사 사자도(시 문화재자료 제38호)>

(강남구청 담당자 및 사업관계자 입장)

○ 사업관계자

안녕하세요? 봉은사 사자도 보존처리 계획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봉은사 사자도입니다. 착수일로부터 300일의 과업 기간을 잡았고요. 소요 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전체 크기와 그다음에 현재 유물보관 현황, 모 식도를 모두 측정해서 사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작 연대는 19세기 후반입니다.  
손상 형태입니다. 손상 형태는 사방에 종이 덧댐이 있고요. 화면이 찢기고 안료 박락 같은 것들 그리고 전반적인 오염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안료 덧댐이 많이 있고 종이 덧댐 부분 위에 흰색 안료가 채색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안료 박락 부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손상 지도를 보시면 노란색으로 된 부분이 흰색 종이를 덧댄 부분입니다. 저희가 먼저 안료 분석을 진행했고요. 안료 분석은 흰색은 연백이 나타났고 석황, 울트라 마린, 에메랄드 그린 같은 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의 안료들이 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봉은사 사자도 기록에 남아 있는 조성 시기와 일치하는 안료임을 확인했습니다.  
산성도 측정을 했는데요. 산성도는 전체적으로 평균 3.74 정도로 나와서 산성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적외선 촬영을 했습니다. 적외선 촬영을 했을 때 바깥에 흰색으로 붙어 있는 종이 부분 안쪽에 검은색 먹선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위쪽에도 종이 덧댄 부분의 아래쪽 구름에 먹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화기 안쪽에도 먹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기 아래쪽에 먹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상과 조금 다른 먹선들을 아래쪽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섬유 분석입니다. 마 계열의 섬유로 추정되는데 저희가 시료를 채취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존처리에 들어가면서 해체 과정에서 탈락되는 섬유로 재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바탕재의 밀도도 조사를 했습니다.  
보존처리 계획입니다. 다음과 같고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정보 및 상태조사 진행이 완료된 상태이고요. 유물 촬영은 보존처리실로 이운한 다음에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과학적 조사는 바탕재, 배접지, 재질 분석을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체 과정인데요. 해체 과정에서 사방에 붙어있던 종이 부분은 수분을 줘서 안료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체하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먹선들을 다시 살려서 보존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표면 안정화를 진행할 예정이

고요. 그다음에 건식 세척과 습식 세척을 진행할 예정이고 표면에 붙어 있는 찌꺼기 같은 것들을 제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표면 앞쪽에서 임시 배접을 진행하고 뒷면으로 돌려서 과거 배접지를 제거하는데, 초배지 제거 유무는 해체 과정에서 다시 한번 자문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과학적 조사를 통해서 결손부를 다짐 메움할 예정이고요. 동일한 재질을 이용해서 보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색으로 염색한 배접지를 이용해서 배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임시 배접지를 앞면에서 다시 제거하고요. 그다음에 색 맞춤을 진행하고 뒷면에서 다시 또 배접을 진행한 다음에 틀은 해체를 모두 다 해본 다음에 재사용할지 여부는 그때 가서 다시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리기 제작, 보고서 작성, 유물 이운으로 해서 마칠 예정이고요. 보존처리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과천시에 있고요. 사진처럼 모두 다 보존처리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숙성품, 과학적인 분석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문가 자문은 총 3회 진행할 예정이고 3인 이상의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정 공정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장

봉은사 사자도 보존처리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죠.

○ ○○○ 위원

아까 발표하신 것 가운데 배접을 할 때 뒤에 염색을 한 종이를 쓴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마 고색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옛날에는 염색 종이를 안 썼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일반적인 종이를 하시는 게 어떨까.

○ 사업관계자

만약에 초배를 모두 다 제거할 경우에는 앞면에서 혹시 비칠까 해서 하는데 만약에 안료가 많이 두껍고, 올 섬유가 성글지 않다고 하면 저희는 염색하지 않은 배접지로 배접할 예정입니다.

○ ○○○ 위원

이게 연대가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그 시대 것이면 안료가 굉장히 잘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염색 안 하고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사업관계자

네. 알겠습니다.

○ ○○○ 위원장

나중에 또 자문을 받으셔서, ○○○ 위원님이 나가실 테니까 그렇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님, 보존처리 방법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죠.

○ ○○○ 위원

네. 사업계획서가 요즘에 문화재청에서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계획서 작성 지침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이따 다음 것도 보시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서대로만 잘 처리하면 큰 문제가 없이 잘 될 것 같습니다.

○ ○○○ 위원

하나 궁금한 게 가장자리에 종이가 덧대어 있잖아요. 그 안에 먹선도 보 인다고 하는데 이것을 떼어냈을 때 원래 색이 많이 남을지에 대한 우려가 돼서 그런 부분을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사업관계자

네. 안쪽에 안료가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료를 최대한 살려서 위의 종이만 걷어내는 형식으로 해체할 예정입니다.

○ ○○○ 위원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아마도 그게 풀 등의 천연적인 것으로 하지 않고 간단한 것으로 고정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배접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 ○○○ 위원

그리고 이게 한 번도 보존처리가 안 됐던 거죠?

○ 사업관계자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 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안에 복장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나중에 하실 때 조심해서 하시고 유물 수습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사업관계자

예. 알겠습니다.

○ ○○○ 위원장

아직 자문회의를 한 번도 안 하셨죠?

○ 사업관계자

네. 아직 안 했습니다.

○ ○○○ 위원장

1차 자문회의는 언제 하실 겁니까?

○ 사업관계자

저희가 이 심의 통과하고 난 다음에 바로 1차 자문회의 진행할 예정입니다.

○ ○○○ 위원장

그때 또 다 의견을 받아서 지금 하신 말씀도 잘 기록했다가 시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 ○○○ 위원

걸에 한지를 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걸어내는 것까지는 걸어내는데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 사업관계자

한지가 앞면에서부터 옆면, 뒷면까지 붙어 있는데요. 이게 틀 형태이다 보니까 사방이 자꾸 해지면서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 붙이고 흰색 안료를 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체해서 안쪽 부분을 살려주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흰색 종이는 따로 보관해서 봉은사 측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 ○○○ 위원

흰색 종이가 최근에 보면 궁궐도 그리고 할 때 본드로 붙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안료 떨어지는 게 심각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떼어내고 나서 나중에 다시 할 때도 아마 옆이랑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자문을 받으셔서 원래의 것을 살려야 할지 아니면 거기를 따로 보강을 할지는 그때 다시 의논해야 할 것 같아요. 워낙에 틀 형태로 잡아주기 위해서 붙인 것이라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안 좋은 방식으로 붙어 있을 확률이 크거든요.

○ 사업관계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문 받아서 결정하겠습니다.

○ ○○○ 위원장

추가적으로 질문 없으시면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강남구청 담당자 및 사업관계자 퇴장)

○ ○○○ 과장

그러면 첫 번째 안건은 말씀해 주신 대로 배접지에 대한 부분과 복장 부분에 대해서 유의하는 것으로 하고, 자문을 실시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가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봉원사 지장시왕도 현상변경 심의 내용입니다.

(서대문구청 담당자 및 사업관계자 입장)

□ <봉원사 지장시왕도(시 문화재자료 제79호)>

○ 서대문구청 담당자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문화체육과에서 왔고요. 봉원사에 소재하고 있는 봉원사 지장시왕도 문화재에 대한 보존처리 안건과 수록무차평등재의철요 두 가지 문화재에 대한 보존처리 안건입니다.

두 문화재 모두 2020년도에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문화재 지정 이전부터 수장고 내부 환경 제어가 미흡하여 보관 상태가 좋지 못해 보존처리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봉원사의 보수 정비 요청으로 2022년도에 현장 점검을 진행하였고요. 점검 결과 올해 6월 경 보수 정비 예산을 교부받았습니다. 봉원사 지장시왕도는 7,790만원, 수록무차평등재의철요는 3,325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고요. 두 문화재에 대한 자세한 과업 내용 및 세부 보존처리 계획에 대한 설명은 각각의 용역 업체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봉원사 지장시왕도 발표가 있겠습니다.

○ 사업관계자

봉원사 지장시왕도는 사업 기간이 2023년 8월 2일부터 2024년 2월 27일까지 210일 동안의 사업으로 착수되어 있습니다. 개요는 넘어가겠습니다.

시왕도의 현황을 보시면 패널 형태로 제작되어 있고요. 횡으로 길게 이어진 파손이 관찰됩니다. 이로 인해서 변색도 있고 안료 박락이나 박리 같은 손상이 많이 심한 상태입니다. 특히 봉원사 수장고가 항온·항습 조절에 어려움이 있어서 보존처리가 끝난 후에도 환경의 제어가 가능한 장소에서 보관을 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보입니다.

현재 훼손 지도를 보시면 상부에 대체적으로 변색이 크게 일어났고요. 보라색으로 보이는 게 이미 결손된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왼쪽 편에 길게 횡으로 균열이 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손에 대한 세부 사항입니다. 물리적인 파손으로 추정되는 손상이 주로 일어났고요. 전체적으로 다 그러한 손상이 보이고요. 그 외에도 안료의 박리나 박락이 확인됐습니다.

자외선과 적외선 조사가 각각 실시됐는데요. 자외선 조사에서 광대 부분

에서 일부 색이 덧칠된 것을 확인했고요. 적외선 조사에서는 먹선의 수정 부위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화기가 없는 상태라서 적외선 조사에서 큰 이력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안료 분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고요. 흰색은 연백, 녹색은 석록, 청색은 회청 등 흔히 알려진 안료들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상 변경을 위한 자문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돋음법이라는 기법으로 안료가 채색되어 있어서, 처리 중에 그 안료의 채색법으로 인해 안료 박락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보존처리 시에 주의해서 처리하라는 게 주내용입니다.

예정 공정표를 보시면 보존처리계획 수립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보존처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사전 조사에서 보존처리계획 수립까지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들어가야 할 처리가 보존처리 사항이고요. 다른 것보다 안료의 고분법에 의한 채색으로 안료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화면 안정화 작업이 가장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후 배접하는 부분에서 균열이 갔던 부분을 따로 메우지 않고 배접을 통해서 거기에 뒤띠를 사용하여 보강하고 그렇게 해서 균열을 메우는 형태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손부에 있는 경 같은 경우에는 유사 재질을 통해서 메움을 하려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간단한 것만 하나 여쭙볼게요. 고분법에 의한 색채가 어떤 색깔이 그런 건가요?

○ 사업관계자

색깔은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장신구 쪽이라든지 그래서 주로 녹색 부분 그리고 눈썹이라든지 얼굴에 표현되는 부분에 검은색 부분도 일부 고분법으로 표현됐습니다.

○ ○○○ 위원

보통은 고분법은 금에 많이 쓰는데 여기서 부풀어진 부분은, 녹색은 채색을 여러 번 칠하게 되잖아요. 혹시 그런 것 때문에 두터워진 현상은 아닌가요?

○ 사업관계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양감을 두도록 선만 도드라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금이 사용된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 부분도 고분법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 ○○○ 위원

고분법이라는 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거죠?

○ 사업관계자

네. 채색층만으로 양감을 줘서 좀 더 명암을,

○ ○○○ 위원

그런데 그 재료가 안료만 가지고 튀어나오게 하지는 않잖아요.

○ 사업관계자

네. 보통은 밑에 호분이라든지 체질 안료를 놓고 그 위에 채색을,

○ ○○○ 위원

그런데 여기서도 그게 확인이 됐나요?

○ 사업관계자

저희가 아직 비파괴 분석만 한 상태여서 상세한 분석은 하지 못했습니다.

○ ○○○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보수할 때는 원래 썼던 재료와 동일한 재료로 마찬가지로 효과를 낼 계획인가요?

○ 사업관계자

예.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안료 분석도 실시했습니다.

○ ○○○ 위원

그것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 사업관계자

네. 이 고분법이 단청에서는 자주 발견되는 방법이기는 해서 저희가 불화 상에서는 처음이기는 하지만 고분법 자체가 낮은 것은 아닙니다.

○ ○○○ 위원

그런데 그게 바탕재가 다르면 부착되는 게 사실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우키요에 같은 데에 많이 쓰거든요, 그것은 종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테스트를 하든지, 하여튼 이것을 안 해보셨으면 단청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사업관계자

네. 안 그래도 이런 고분법으로 채색된 다른 불화들을 계속 조사하고 있고요. 그 조사 도중에 혹시라도 보존처리가 된 문화재가 발견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접근하려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 ○○○ 위원

일부 초상화에서 쓰거든요. 초상화의 관 같은데, 그런 것도 보존처리가 된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 사업관계자

네. 금박으로 된 고분법이지만 일부 보물로 알고 있는 괴불탱에도 사용된 기법이 있다고 해서 지금 몇 군데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 ○○○ 위원

지금 사진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고분법으로 처리한 부분의 안료 박락 이라든지 상태는 어떤가요?

○ 사업관계자

의외로 고분법으로 한 부분은 박락이나 박리가 크지는 않았는데요. 저희

가 우려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배접지를 제거하는 등의 과정을 거칠 때 화면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그때 혹시나 손상이 갈까 봐 그 전에 충분히 안료 강화를 마치고 부분적으로는 약한 부분을 임시페이싱 작업을 해서 안정적으로 그 부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 ○○○ 위원

혹시 떨어진 부분은 나중에 저 방법으로 해서 보강을 안 할 거잖아요.

○ 사업관계자

그래서 만약에 저희도 정확한 안료 박락에서 그 부분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혹시 처리 과정에서 그렇게 박락된 부분이 있다면 떨어진 편을 분석해서 단면을 보고 같은 기법으로 할 예정입니다.

○ ○○○ 위원

발표 자료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조금 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보존처리 과정이, 시간이 없어서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한 장으로 끝낸 것은 조금 그렇거든요. 그것은 밤을 새서라도 하셔서, 제가 이 자료는 어제 저녁에도 봤는데 너무 간단히 되어 있어서요. 그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관계자

죄송합니다.

○ ○○○ 위원

아까 듣지를 못했는데요. 고분법이 떨어져 나간 부분을 보존처리 하면서 다시 하신다는 얘기에요?

○ 사업관계자

아니요.

○ ○○○ 위원

그냥 분석만 하신다는 얘기죠?

○ 사업관계자

네.

○ ○○○ 위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이 훼손의 가장 큰 점은 상하가 갈라진 거잖아요. 현재 방식으로 해서 이게 잘 붙어 있을까요?

○ 사업관계자

두루마리 상황이 아니라 패널 상황이기 때문에 그 패널에 부착되는 형식이라서 그것만으로도 균열이 감당될 것으로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 ○○○ 위원

뒤에 삼베 등으로 보강을 하시면. 띠로 보강을 하신다면 튼튼할 겁니다.

○ 사업관계자

예.

○ ○○○ 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서대문구 담당자 및 사업관계자 퇴장)

○ ○○○ 과장

두 번째 안건은 가결로 진행하고 말씀하신 고분법 부분을 체크해 보는 것으로 하고 뒷면 보강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수록무차병등재의철요 현상변경 심의입니다.

(서대문구 담당자 및 사업관계자 입장)

<수록무차평등재의철요(시 유형문화재 472호)>

○ 사업관계자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 살펴보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수륙 무차평등재의철요 1책입니다. 사업 지침은 ‘관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동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와 ‘훼손된 부분에 대한 보존처리를 시급히 실시한다.’입니다. 사업 목적은 훼손된 수륙무차평등재의철요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보존처리를 진행하여 상태 회복 및 고유 가치 보존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 28일까지입니다.

대상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유물 개요입니다.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472호 수륙무차평등재의철요는 사찰본으로서 1책 67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복장 유물이었습니다. 이 유물은 제1~6편, 수륙 1~2장까지는 내용 부분이 탈락되어 있으며 ‘수설수륙 대회소문방’을 제목으로 내용 끝에는 ‘모년모월모일방 병법사문모압’과 같은 양식으로 총 11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형태 및 실측 내용입니다. 본 책은 선장본 형태로 침안은 4개소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글자는 행자수 부정 형태의 서지학적 특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판본 51장에 이어서 필사본 18장이 합철되어 있었는데 앞 8장은 다른 본지의 크기보다 더 작았고요. 뒤의 필사본 8장은 다른 본지에 비해서 발수, 발끈 폭이 다르게 조사되어서 종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정 당시에 표지도 발견이 되었는데 이 표지는 본지보다 크기가 상이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손상 현황에 대한 사진 파일인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상 지도 부분입니다. 손상 유형의 결손, 마모, 접힘과 구김, 물리적 손상, 오염, 얼룩, 충·균해, 보수 이렇게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손상 지도를 작성하였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사진 자료를 토대로 종합 결과 및 특이 사항으로 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본 책의 손상 유형 및 분포를 보시면 결손, 접힘·구김, 마모, 오염·얼룩, 충·균해, 보수, 판심 분리, 책사 결실, 표지 없음 등의 손상 유형이 있었고요. 제일 크게 관찰되었던 것은 오염·얼룩 부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쪽 서뇌에 표지로 추정되는 종이가 5% 정도 남아 있었고요. 수륙 1~2장까지는 90% 정도 결손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뇌에 잔존되어 있는 종이를 통해서 파악이 되었는데 이것은 앞서 설명을 드려서 넘어가고요. 내지 일부는 보수지로 메

음되었으나 사용된 보수지는 본지와 발수 및 발끈 폭이 다른 종이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수지로 보강된 부분은 접착제 잔여물 및 곰팡이 균이 관찰되었습니다. 모든 장의 판심은 분리되었으며 장정실은 두 종류로 조사되었습니다.

보관 현황 및 이력입니다. 봉원사 소장 수록무차평등재의철요는 봉원사 경내 주지 스님 처소 안 대형 금고에 별도로 보관되어 있었는데 금고 내부는 별도의 유물 보관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이 책은 얇은 중성지에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재 과학적 분석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성도 측정 결과 산성도는 전체적으로는 5.64~6.40 범위의 산성도가 확인되어 약산성 범위로 조사되었습니다. 색도 측정 결과 오염 및 얼룩 형성 부위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명도 값은 높게, 적녹색도와 황청색도는 낮게 측정되는 경향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미경 조사 결과는 섬유소 열화가 관찰되었고 섬유소 배열, 그러니까 제지 방식으로 무작위 격자 형태(홀림 뜨기)로 제지가 된 것으로 조사되었고요. 저희가 현미경 조사를 하면서 도침 적용 여부도 판단하고자 하였는데 섬유소가 심각하게 열화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섬유 분석 결과 닥나무 섬유가 주성분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적외선 촬영 결과는 별도의 목서나 명문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자외선 촬영 결과로는 육안 조사 시에 보이지 않았던 오염 및 얼룩이 산발적으로 중첩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보수지는 본지와 다른 광원 발광으로 인해서 본지와는 상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상 현황을 설명해드렸고요. 이제 보존처리 계획 내용입니다. 보존처리 계획 전에 자문을 받았는데요. 주요 안건만 짚고 넘어가면 3항은 보존처리 대상 유물은 마모 및 구김, 말림 등 물리적 손상이 다수 발생되어 있으므로 형태 보정 작업 후 진행하겠습니다. 4항은 세척에 관한 무리한 세척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고요. 5항은 결손부에 대한 보존처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여기에서의 주 사항은 결손부 보존처리는 손상 정도에 따라 메움 이외에 보강의 방법을 제시하되, 종이 물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유물의 원재료와 가까운 재료를 선택해서 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6항에 있어서는 책 표지는 본지와 크기가 상이하니 새로 제작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보존처리 계획을 수립하였고요. 공정은 지금 보존처리 계획 수립까지 진행된 상태이고 자문회의 계획을 말씀을 드리자면 보존처리 재료를 준비 후에 보존처리 재료 및 방법 검토, 이때는 일부 클리닝 후에 점도 확인까지 포함한 자문을 계획했구요. 마지막 자문은 재단 및 장정 후에 보존처리 결과 검토의 내용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손상유형별 보존처리 방안인데요. 이 부분은 수량 산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내역서 작성의 참고자료 근거로 활용하였습니다. 손상유형별 보존처리 방안인데요. 다른 부분은 고서 보존처리에 준하는 내용인데 열화 부분에 있어서는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본책은 복장물인 관계로 섬유소가 많이 열화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약화된 종이의 보강을 위해서 얇은 닥섬유지를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보강하는 작업을 실행할 계획으로 보존처리 계획을 세웠고요. 물론 이 작업은 대상 선정 후에 관계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확인 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필사본 52장에서 59장 즉, 유물 본지보다 크기가 작은 필사본은 해체 후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계전문가 검토 후에 보존처리 방법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진행 일정표에 대한 간단한 내용이고요.

다음은 활용 및 계획인데 보존처리의 사업 결과에 대한 활용계획에 있어서 이 부분은 안정적인 보존처리를 진행함으로 인해 정밀한 학술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아무래도 지정조사를 할 때 학술조사도 병행됐어야 했는데 너무 손상도가 심해서 그 부분이 간단하게 진행되었던 부분이어서 보존처리 진행 후에 그 부분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존관리 계획인데 저희는 보관함을 제작해서 조습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응급하게 관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납품을 할 계획인데요. 봉원사에 보존관리 계획에 있어서 별도의 수장고가 없어서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위원장

질문 부탁드립니다.

○ ○○○ 위원

저 책에서 핵심적으로 보존처리가 되어야 할 게 판심이 분리된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잘 하셔야 하는데 왜냐면 간격 때문에 여기를 분리시키면 간격을 잘 조절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 점에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중에 열화 관련해서 처리 후에 산성도 PH가 측정이 다시 되는 거죠?

○ 사업관계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현재는 산성도 측정을 용액을 떨어트려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하면 얼룩이 생길 수도 있어서 어느 정도 포인 트라도 비교할 수 있으면 그렇게 진행을 해볼 계획이기는 합니다.

○ ○○○ 위원

열화가 많이 진행됐으니까 그것은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사업관계자

전후 비교를 위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 ○○○ 위원

지금 보면 원 책지에 인쇄했던 당시와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보수되면서 다른 종이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보면 자문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겠다고 했지만 격식에 맞게 해서 자문회의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는데 대표적인 것도 표지 같은 경우도 새로운 다른 표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놓고 수리 보존하는 방법으로 갈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대체적으로 시기가 오래되고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많은 보수지가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가능한 한 그것을 버릴 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역사이기 때문에 활용할 것은 활용을 하되, 만약에 다 보수를 한다면 본지를 빼놓은 나머지 보수지들은 다 들어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착안을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가능한 한 살려서 보수지도 본지와, 지금은 사용할 때는 원래의 책지 본지와 조금 유사한 것으로 맞춰서 수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사업관계자

그래서 과학적 조사도 실행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결손부라고 했는데 앞 1~2장은 앞의 서뇌 부분에 일부만 남아 있는 상태여서 이것은 두 가지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예 공지를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본지와 물성이 같은 종이를 공지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서넛 부분에 작게 남아 있는 것을 연결시켜서 복원할 것인지 이 부분을 자문회의 검토를 통해서 결정해서 진행하도록 계획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 ○○○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책 자체를 하나를 일일이 살피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말을 던져놓기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 ○○○ 위원

보수지의 종이가 본지하고 다른, 닥지로 된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그것은 분석이 아직 안 됐나요?

○ 사업관계자

그것은 저희가 따로 분석을 하지는 않았습시다. 왜냐면 본지와 아예 다르다는 것은 자외선 촬영 결과에서도 나와서 따로 분석을 하지는 않았습시다.

○ ○○○ 위원

닥지로 되지 않았을 때는 보수지가 훨씬 빨리 열화가 돼서 그럴 가능성이 너무 많아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요.

○ 사업관계자

육안상으로는 장섬유지가 맞고요.

○ ○○○ 위원

장섬유인가요? 그러면 그나마 괜찮은데 단섬유 같은 경우는 그것을 다시 사용하는 것은 좀...

○ 사업관계자

보수지에 부착 부분이 접착 물질에 의해서 곰팡이 오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거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 ○○○ 위원

그리고 25쪽 보시면 열화 부분에 대해서 장섬유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보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보강을 하실 건가요?

○ 사업관계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전에 배접이라는 용어를 여기에 쓰기는 좀 그래서 보강이라고 했거든요. 책 본지에 판심을 보강하고 전체적으로 뒷면에 덧대어주는, 그래서 보강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 ○○○ 위원

그렇게 하면 몇 장 정도 해야 하는 건가요? 아직은 파악이 안 되죠?

○ 사업관계자

네.

○ ○○○ 위원

그러면 보강된 만큼 두꺼워질 수도 있고요.

○ 사업관계자

그래서 최대한 얇은데 장섬유 재질로 된 종이를, 저희가 그 이전에도 그런 처리 방법을 적용했던 사항이 있어서요.

○ ○○○ 위원

전체 배접은 요즘 안 하는 추세인데요.

○ 사업관계자

그러니까 전체 배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때 했던 종지와 제가 말씀드리는 보강지와는 두께 차이에서는 너무 확연하게 달라서요. 거의 섬유만 보이는 종이입니다. 잠자리 날개처럼 보이는 종이입니다.

○ ○○○ 위원

그것을 적용하실 때는 분명히 계속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문을 거쳐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 사업관계자

재료 검토요.

○ ○○○ 위원

일단은 저렇게 보강한다는 것은 일단 글씨가 많이 흐려진다는 이야기도 되거든요.

○ 사업관계자

투명합니다. 뒷면에 이렇게 투명하게.

○ ○○○ 위원

그러니까 지금 뒤쪽에만 하는 거죠?

○ 사업관계자

네, 맞습니다.

○ ○○○ 위원

그거는 상관없죠.

○ 사업관계자

맞습니다. 다행히 이것이 양면이 아니라서요.

○ ○○○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 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시면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서대문구 담당자 및 사업관계자 퇴장)

○ ○○○ 과장

그러면 수륙무차평등재의활요는 이대로 가결하고 말씀드렸던 판심이나 산

성도 측정 등 이런 것들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안건입니다. 사자암 현왕도 현상변경 심의 건입니다.

(사업관계자 입장)

□ <사자암 현왕도(시 유형문화재 제289호)>

○ 사업관계자

일반적인 개요 사항은 생략하면서 바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사자암 현왕도 보존처리에 대한 발표입니다. 우선 저희가 처리 전에 자문회의를 1차적으로 진행하였고 사업에 대한 일반 개요와 사찰과 유물에 대한 일반사항은 앞부분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유물은 비슷한 유형으로 통도사와 원각사 현왕도로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보존처리 대상 유물의 앞·뒷면 사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화면 쪽의 손상은 크게 많지 않으나 뒤쪽에 범 자가 쓰인 뒷면 종이가 많이 찢어지거나 결실된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유물에 대한 실측을 진행하였고 각 세부 상황과 화기 등에 부분적인 크기 측정도 진행하였습니다. 전체적인 크기는 세로 129cm 정도이고 폭은 93cm 정도입니다. 손상 유형으로는 크게 천공과 찢음이 화면에 묻은 것이 있으며 안료 등이 굽힌 부분이 있습니다. 화면 전체적으로 오염 등의 손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면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관리 중에 많이 찢긴 상태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찢겨진 배면을 통해서 액자 안쪽에 복장물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손상에 대해서 저희가 도식화해서 손상 지도를 작성하였고 과학적 분석으로는 사용된 채색 안료를 분석하는 내용과 바탕 재질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바탕 재질은 면 재질로 확인하였고 사용된 채색 안료로는 녹색으로는 염화구리와 에메랄드그린, 적색으로는 석간주와 주, 청색은 울트라 마린 블루가 확인되었고 황색으로는 석황, 금, 백색은 연백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각 세부 측정된 포인트는 표로 작성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보존처리 과정은 일반적인 불화 액자 보존처리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전 조사를 마친 이후에는 훈증소독을 진행하고 훈증 이후에 액자틀에서 화면과 뒷면 종이를 분리하는 과정으로 진행합니다. 1차적으로는 안료의 안정화를 위해서 아교를 더하여 안료 안정화를 진행하고 화면에 붙은 찌꺼기를 1차적으로는 물리적으로 제거합니다. 그 이후에는 습식클리닝을 통해 수용오염을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화면 뒷면에 붙어 있는 배접지 제거를 위해서 화면을 임시 보정하는 페이싱 작업을 진행한 이후에 뒷면 배접지 제거를 진행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1차 배접지까지 제거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나 유물의 경우 초본, 1차 배접지에 초본이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보존처리 과정에서 자문회의를 통해서 1차 배접지의 제거 여부는 결정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배접지 제거까지 완료된 이후에는 화면의 결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조사 시 얻은 데이터를 통해서 동일한 바탕직물로 메움 처리를 진행하고 본래 유물의 순서에 맞춰서 배접하여 건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개장이 된 액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액자틀을 재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해체를 해보았을 때 재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새롭게 교체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뒷면에 진원이 쓰인 종이가 뒷면으로 붙어있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다 보존처리 하여서 재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액자 속지를 구성하고 뒷면에 진원을 붙이고 앞면에 화면을 붙이는 과정을 통해서 보존처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복장물의 경우에는 저희가 해체 과정에서 복장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납입하는 방법은 액자를 다 구성한 뒤에 뒤쪽에서 절개를 하여서 복장물을 납입한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본래의 방법과 순서에 맞춰서 복장물을 재납입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설명해드린 순서에 맞춰서 일정표는 앞에 표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 ○○○ 위원장

네, 질문해 주시죠.

○ ○○○ 위원

저는 이것을 보고 의견서를 썼기 때문에 다른 의견은 별로 없고요. 다만 뒤의 부분이 굉장히 바스라지게 상태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일 뒷면에 다라니가 있는 부분을 제거하실 때 굉장히 유의를 하셔서 더 이상의

손상이 없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다른 것과 다른 이유가 복장을 원래는 넣고 배접을 하잖아요. 제일 뒤에. 그런데 이것은 이미 다 해놓은 다음에 뜯어서 넣고 다시 거기에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옛날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해 주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 위원

저 그림이 원래 저렇게 그려진 겁니까?

○ ○○○ 위원

네.

○ ○○○ 위원

뒷면 배경이랑 덧칠된 게 아니지요?

○ ○○○ 위원

병풍이 저렇게.

○ ○○○ 위원

저렇게 그려진 거예요?

○ ○○○ 위원

네. 병풍이 어떤 경우에는 팔곡이나 십곡이나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반에 가면 저렇게 한통속으로 해서 뒤에 그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원래는 이런 식이 되어야 하는 거죠. 통도사 방식으로.

○ ○○○ 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복장물이 현재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것을 다시 확인하지는 않고 그냥 집어넣을 건가요?

○ ○○○ 위원

가능하면 그대로, 그러니까 조사만 하고 그대로 재복장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 위원

소장처에서 굳이 부수겠다고 하면 가끔 여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웬만하면 그대로 집어넣는 것이.

○ ○○○ 위원

소장처에서 가끔 자기네가 갖고 있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원래 것은 넣고 나중에 하나 더 만들어서 해드리든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 ○○○ 위원

춧농 제거를 이렇게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나요?

○ 사업관계자

네. 기본적으로는 물리적으로 표면의 춧농을 제거하고 제거 시에 채색 안료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 살짝 열을 가해서 춧농을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 위원장

공기가 굉장히 짧은데요. 석 달인데요. 다른 안건에 비해서 공기가 짧은데 석 달이 괜찮으세요?

○ 사업관계자

네. 우선 작품 크기가 대형 작품은 아니기도 하고 손상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 위원

한 번도 개장되지 않은 거죠?

○ 사업관계자

네.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개장 흔적은...

○ ○○○ 위원

왜 그러냐면 뒤쪽에 있는 뒷면 종이가 실제로는 나머지 서울시에 있는 나머지 종이들도 다 저렇게 19세기 말 것이 저런 상태라서 상태가 안 좋거든요. 나중에 자문 받으셔서 종이는 좋은 종으로 바꿔야 할 것 같아요.

○ 사업관계자

저희가 액자 속틀을 구성할 때 보존성을 위해서 5층 정도로 속틀을 구성하고 기존에 범어가 쓰인 종이는 위쪽에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상태가 안 좋으면 뜯어서 원래 자리에 붙이는데 그때 얘기할 때 이것은 뒤에 배접만 잘하면 원래 상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부착하기로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죠.

○ 사업관계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 ○○○ 위원

뜯어 붙이면 안 좋을 것 같아요.

○ ○○○ 위원

뒤에 종이가 워낙 안 좋아요. 질이 안 좋아요. 양지 계통이라서.

○ ○○○ 위원

이것은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지금 동작구청에서는 저렇게 보존처리를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놨는데 지금 상태라든가 보면 관리 소홀이거든요. 그런 문제를 동작구청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계획도 있으세요?

○ 사업관계자

저는 수행업체여서요.

○ ○○○ 위원

수행업체인가요?

○ 사업관계자

네.

○ ○○○ 위원

그건 서울시에 얘기해야 해요.

○ ○○○ 위원

저게 그 당시가 되면 장지 같은 걸 붙이게 되면 터지는 거예요.

○ ○○○ 위원

지금 사찰 이런 데가 아까 봉원사 같은 경우도 거의 창고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사실상 없어서.

○ ○○○ 위원

없어요.

○ ○○○ 위원

거기 사찰에서 잘 보관하게끔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 ○○○ 위원장

사찰을 믿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 배석

저희가 사찰에 얘기해서 그 부분은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시면 퇴장하셔도 됩니다.

(사업관계자 퇴장)

○ ○○○ 과장

사자암 현왕도 건은 말씀해주셨던 추가 손상을 방지하는 부분이라든지,

관리 문제 같은 것은 저희가 구청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가결로 처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지정문화재에 대한 심의인데 ○○○ 위원님이 미리 와 계시니까 일괄로 3건을 설명을 다 들으시고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4번, 19번, 20번 3건입니다. 먼저 4번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 ■ 서울시 지정문화재 사전 심의

### □ <분청사기 상감 포류수금연화문 병>

#### ○ ○○○(서울시 문화재전문위원)

안녕하세요. 처음 건은 분청사기 상감 포류수금연화문 병입니다. 조선 전기 분청사기로 그런 양식으로 제작이 된 건데요. 형태나 문양 같은 것들은 장식기법이 있을 법한데 문제가 비교를 해봤을 때 일단 굽이 지금 사진에는 잘 안 나와 있는데 굽 높이가 굉장히 낮고 굽 접지면이 좁은데요. 조선 전기에 분청사기 병들은 기본적으로 굽 높이가 높고 굽 접지면도 두꺼운 특징이 있고 이런 흑백 상감류들을 제작하는 가마는 주로 경상북도 지역에 많이 있고 그다음에 전라도 쪽에도 우하리라는 가마에서도 비슷한 게 나오는데 지금 위에 보시는 두 점은 전세품에 해당되는 것이고 밑에는 경상북도 쪽 가마에서 나오는 건데 일단 무게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가볍고요. 굽 형태가 시대 양식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디자인 같은 경우도 있을 법하기는 한데 유사한 사례를 찾기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보수한 흔적도 있지만 진위를 떠나서 굳이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해서 보존관리를 하거나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지정 불가 의견으로 모았어요.

### □ <오리형 토기>

다음은 오리형 토기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래질이 많이 섞여 있는 연질의 오리형 토기인데 이게 보통 오리형 토기 같은 경우는 제작기법이 라든지 아니면 소성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조사대상보다는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구워지고 점토 같은 경우에도 치밀하고 그런 것들이 많

은데 제일 이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일단 몸이 너무 세장한 형태라서 그게 보통 일반적으로 남아 있는 그 시대의 양식과는 일치하지를 않았고요. 지금 사진에서 잘 안 보이는데 우측 하단에 바닥 쪽에 보면 보통 성형 방식이 물레 성형을 하거나 손으로 만들거나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밑에서 봤을 때 틀을 이용해서 흙을 눌러서 찍어서 만든 것으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제작 방식 자체가 완전히 오리형 토기의 제작 방식과는 상이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상하다고 여기 밑에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굽 높어도 일반적인 오리형 토기보다는 상당히 낮은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교 자료로 ○○○ 교수님께서 이런 자료를 보여주셨고요. 보통 경상도 지역에서 많이 제작되는데 그냥 한눈에 봐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굉장히 약하고 그다음에 제출 사진에는 조사대상 사진에는 원래 저렇게 부리가 다 부착되어 있는 상태로 왔는데 밑에 보시면 왼쪽 아래쪽 사진 보시면 부리가 파손된 상태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굳이 지정해서 보호할 만한 가치는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 □ <가형 토기>

그다음에 같이 신청을 하신 가형 토기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결실이 부서진 부분인데요. 집 형태 자체도 뒤에 나오겠지만 한국에서 만들어진 가형 토기와는 차이가 있고요. 이런 것과는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아마 그 부서진 부분을 통해서 볼 때 여러 개의 집이 복합된 가옥 구조 중의 일부인 것 같아서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중국 그런 것을 모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재질 같은 것이나 여러 가지가 딱히 우리나라 문화재라고 특정하기도 힘들지만 보존도完형, 이렇게 일괄이 아니라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굳이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 ○○○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 ○○○ 위원

특별한 질문은 없고 마지막에 보여주신 가형토기는 실제로 국적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서 그 정도만 첨언하겠습니다.

○ ○○○ 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시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과장

그러면 분청사기 건, 오리형 토기 건, 가형 토기 건에 대해서는 부결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 학예연구관님이 하셨던 건입니다. 14번, 15번, 16번이고 페이지로는 93페이지입니다.

○ ○○○ 위원장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前국립○○박물관 학예연구관)

조사한 유물 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예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수 구운몽도 병풍과 매화도 병풍 그리고 자수 굴레 이렇게 세 점입니다.

□ <자수 구운몽도 병풍>

구운몽도 병풍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내 박물관들에, 중앙박물관 그리고 한글박물관 그리고 민속박물관, 행소박물관 등에 구운몽도 민화 병풍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예박물관 유물은 특별하게 자수로 된 병풍인데 조사를 해보니까 한글박물관 민화 병풍과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민화에서는 스토리 전개로 이렇게 순서대로 민화가 병풍이 되어 있었는데 자수 병풍은 유물을 자세히 조사해보니까 중간에 한 번 자수가 보수된 흔적이 조금 보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표구를 다시 하시면서 순서를 바꾼 건지 순서가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글박물관하고 같이 비교해봤을 때 7쪽은 똑같은 장면으로 묘사가 되어 있었고 나머지 4쪽은 사실은 한글박물관과는 그림이 달라져서, 그것은 작가가 그리면서 본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자수는 굉장히 잘 놓아져 있었고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자수 병풍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정도는 보수가 된 흔적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상태도 양호하고 매우 좋은 자료여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 □ <자수 매화도 병풍>

다음 매화도 병풍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화도 병풍은 매화 그림만으로 그려진 유물도 있고 이것은 자수로 표현된 건데 현재는 고궁박물관, 아모레퍼시픽, 중앙박물관 이렇게 세 곳에서 매화도 병풍, 자수 병풍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뒤에 조금 넘겨보시면 약간 구도에 차이는 있지만 거의 같은 형태로 그려진 것을 자수로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상태도 아주 양호하고 매화도 병풍은 보존처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사실 구문몽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자수 기법이 다양하게 다 나와 있었고 그렇지만 구문몽도의 자수기법과는 이 매화도 병풍은 다소 거칠면서도 약간 붓터치 느낌같이 자연스럽게 표현한 부분들이 있어서 다른 박물관의 자수 병풍과도 비교해볼 만한 가치가 유물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 □ <굴레>

세 번째 굴레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김광균 시인이 100일과 돌 때 썼다고 하는데 저희가 사이즈로 봤을 때는 돌 때 썼을 만한 사이즈입니다. 크기가 그 정도의 사이즈이고 서울시 무형문화재 매듭장(명예보유자)이신 ○○○ 선생님이 아버님 것을 계속 보관하고 계시다가 기증하신 유물입니다. 전체를 다 찾아봤는데 굴레가 지정된 유물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자류, 관모류, 쓰개류가 지정된 유물은 없더라고요. 없고, 사실 이 유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1914년생이신 김광균 시인의 확실한 연대라든지 개성 굴레와 서울 굴레가 차이가 있어요. 세 가닥, 아홉 가닥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런 개성 굴레의 원형을 볼 수 있는 굉장히 original한 작품이라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고 ○○○박물관에 계시는 조사

위원이셨던 ○○○ 선생님이 이미 보존처리를 한 번 다 하셔서 상태도 완벽하게 잘 처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 점 다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무리가 없어 보여서 저희 조사위원들은 그렇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 위원장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죠.

○ ○○○ 위원

매화 병풍의 경우 왼쪽 아래에 제발이 수로 놓여 있잖아요. 이 경우는 양기훈 그것이란 관련이 없는 제발인 모양이죠? 조그마해서 안 보이는데요.

○ ○○○(前국립○○박물관 학예연구관)

사실 확실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 ○○○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서명이나 인장 같은 것을 수로 추가로 놓지는 않은 거죠?

○ ○○○(前국립○○박물관 학예연구관)

네.

○ ○○○ 위원

네, 알겠습니다.

○ ○○○ 위원

구운몽의 경우는 연대 같은 것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죠?

○ ○○○(前국립○○박물관 학예연구관)

구운몽도요?

○ ○○○ 위원

네. 현재 있는 자수도.

○ ○○○(前국립○○박물관 학예연구관)

네. 연대는 조선시대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실 색상이 제가 보기에는 화학염료 색상이 있어요. 보랏빛이라든지 초록빛 중에서 확연하게 화학염료 색상이 보이는 게 있어서 조선시대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1900년 이후라고. 화학염료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된 게 1920년대 전후인데 그 정도거나 그것보다 조금 더 넘어가지 않을까.

○ ○○○ 위원

그런데 지금 시대는 조선 후기로 되어 있어서요.

○ ○○○(前국립○○박물관 학예연구관)

그래서 그것은 만약에 지정이 되면 지정할 때 그 시대는 수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 위원

왜냐면 화학 염료 사용한 것으로 본다든지 현재 실 색깔이라든지 나머지 것들이 조선 후기로 보기는 어렵고 19세기 말보다는 20세기 조금 더 가까운 게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 ○○○(前국립○○박물관 학예연구관)

네. 20세기 초가 맞을 것 같습니다. 매화도도 사실 조선시대로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 ○○○ 위원

왜냐면 매화도의 경우는 양기훈 것이 거의 1903년에서 1905년 사이에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20세기 초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제발도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특히 구운몽도의 경우는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서 시대는 더 봐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개장은 조금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前국립○○박물관 학예연구관)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 위원

알겠습니다.

○ ○○○ 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대가 전부 다 일제강점기로 내려오나요?

○ ○○○ 위원

매화도의 경우는 그때 조사했을 때는 현재 1903년에서 1908년까지 해당 되는 지금 고궁박물관에 있는 아주 좋은 게 있거든요. 그거랑 실제로는 제발이라든지 나머지 것이 같아요. 다만 양기훈 것을 가지고 그 당시에 이렇게 자수를 하는 게 유행을 했기 때문에 많지 않고, 현재 국립고궁박물관 것, 여기 공예박물관 것 있고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 정도만 있는 상태라서 이것은 확실하게 가능성이 조금 있는데 현재 세 가지의 문제점 중에 한 가지가 다 1910년대 전후거든요.

○ ○○○ 위원장

네, 시대가.

○ ○○○ 위원

그래서 이것을 유형문화재로 해야 하는지 등록으로 해야 하는지 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기는 한데, 이것은 10년은 지나지 않기 때문에, 김광균 선생님은 것은 1915년이기는 하지만 나머지 것은...

○ ○○○ 위원장

예전에 지정했을 때 수혜(繡鞋) 같은 경우에는 1910년도 그때 이후도 전후한 기간도 유형으로 했던 기억이 있어요. 수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 ○○○ 위원

네, 없으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아마 두 가지 정도에 해당되는 것은 20세기 초, 특히 구운몽 같은 경우는 1920년 정도로 보거든요. 화학염료

가 우리나라에 많이 쓰였던 것이. 구운몽도는 알 수 없는데 매화도 같은 경우는 1908년 그 정도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김광균 것은 1914년이라고 하면 그 정도여도 현재 우리가 많지 않은 것에 비하면 지정해서 넣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 ○○○ 위원장

그러면 지정 종목은 그대로 유형으로 가도 괜찮다는 말씀이죠? 어떠세요?

○ ○○○ 위원

예.

○ ○○○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뒤에 지정 심의도 있지만 초상화 같은 것은 1928년도 지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연대가 저희가 자꾸 뒤로 밀리기 때문에 1920년대까지도 작품이 충분히 가치가 있다면 연대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 ○○○ 위원

예전에 불화 같은 경우에는 연대와 상관이 없이 전통화법을 계속 갖고 있으면 유형문화재로 하고 새로운 기법이 있으면 등록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 위원장

그러면 그냥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 ○○○ 주무관

저도 질문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굴레를 ‘김광균 굴레’라고 지정 명칭을 해야 하느냐, 그냥 ‘굴레’라고 해야 하느냐. 이것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 위원

근대문화재를 지정하는 목적이 어쨌든 근대적 성격이 강하고 근대의 역사나 이런 것을 반영한 유물로 분류를 하는데 이 굴레는 그런 성격이 뚜렷

해 보여서 이것을 유형으로 해도 되는지.

○ ○○○ 위원

우선 구운몽과 매화는 확실하게 19세기 말에는 20세기 초에 아주 대형 병풍을 만들 때 그 시대에 해당되는데 굴레는, 그 대신 시대는 좀 내려야 할 것 같아요. 이 앞에 있는 시대는 20세기 초.

○ ○○○ 위원장

조선 후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 ○○○ 주무관

그러면 시대는 매화 병풍이랑 구운몽도 병풍을 조선 후기에는 20세기 초로 변경하고 시 유형문화재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 위원

예. 그리고 지금 ○○○ 주무관님이 말씀하신 얘기는 뭐였냐면 이 굴레를 김광균 굴레로 해야 되나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그 연대가 확정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요. 일반적인 굴레면 지정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정확하게 썼어야, 이순신 장군의 장도여야지만 그것이 지정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살았던 시기하고 그것을 썼던 시기가 확정이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이렇게 할 경우에는 김광균이라는 사람을 넣어주고, 왜냐면 스토리가 되니까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 ○○○ 위원장

그런 전례가 있나요?

○ ○○○ 주무관

명확하게 썼던 것이 확인되는 유물들은 보통 소유자 이름을 넣어서 명확하게 누구의 것이라고.

○ ○○○ 위원

이름을 써야 해요. ‘이육사 ○○○’ 하듯이.

- ○○○ 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가야 하겠네요.
- ○○○ 위원  
그게 개성 시기도 두드러진다니까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 ○○○ 위원  
개성 굴레는 아니고요.
- ○○○ 위원  
그러니까 김광균 개성 굴레.
- ○○○ 위원  
아니, 개성 굴레는 그 사람이 살았던 것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인 것이고 이것은 명칭이기 때문에 ‘김광균 굴레’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 ○○○ 위원장  
어떠세요? 다들 의견이 괜찮으세요?
- ○○○ 위원  
그러면 일제강점기가 아니라 1915년 이렇게 딱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굴레는 아기 때 쓰는 거니까.
- ○○○ 위원장  
돌 때 사용했으니까. 1915년생이니까.
- ○○○ 위원  
그것은 쓴 때지, 이게 제작 연도인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이라고 하는 게 낫죠.
- ○○○ 위원

정확히 하려면 ‘김광균 착용’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 위원

그런데 그렇게는 안 해요. ‘이순신이 가지고 있는 장도’ 이렇게는 하지 않고 ‘이순신 장도’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선생님께서는 만든 시기와 1914, 1915년 이럴 수 있어서.

○ ○○○ 위원

일단 20세기 초로 하면 문제없잖아요.

○ ○○○ 위원

그냥 20세기 초.

○ ○○○ 위원장

네. 그런 식으로 하죠.

○ ○○○ 위원

괜히 나중에 1, 2년 차이가 문제 될 수 있으니까.

○ ○○○ 과장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건에 대해서는 연도를 수정하는 부분과 명칭을 수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지정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1페이지 소문사설 관련해서 다음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소문사설>

○ ○○○ 위원

소문사설 말씀드리겠습니다. ○○○ 선생님과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목대로 얘기를 드리면 ‘견문이 좁은 사람이 보고 들은 이야기를 기록한 것’ 이렇게 풀 수가 있고요. 이시필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시필이 경주 이씨인데 이 사람은 의관입니다. 중인인데 잘 알려진 의관입니다.

속종의 어의를 지냈기 때문에. 이분이 여행도 자주 갔다 보고 하면서 견문이 굉장히 넓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고 듣고 한 것을 다 모아 저술한 거죠. 했는데, 그 내용이 네 가지입니다. 앞의 ‘전항식’, ‘이기용편’, ‘식치방’, ‘제법’, 이 네 가지 항목을 적었는데 앞에 전항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이명의 글을 가지고 그대로 옮겨냈다고 기록해놨습니다. 해냈고, 그다음에 전항식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온돌인데 청나라 중국식 온돌을 해서 벽돌을 가지고 온돌하는 것을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표시를 했고요. 나머지 이기용편은 도구 제작에 관한 것 같습니다. 그림을 한 번 보여주시죠. 예를 들면 밑에 새 잡는 방법, 물고기 잡는 방법 저런 식으로 그림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재미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재미있는데 저 색깔이 약간 다른 것은 플래시를 터트린 것과 안 터트린 것의 차이입니다. 같은 책이고요. 표지나 상태나 이런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다 조사를 했는데 3종이 남아 있습니다. 2종이 종로도서관에 지금 두 개가 있는 것 중에 이것이 하나고요. A본이라고 하는 것이고 B본은 이것보다 내용이 훨씬 더 적고 제법만 들어있는 것입니다. A본은 국립도서관에 있는 것인데 그것도 저것보다는 양이 적습니다. 적은 것이라서 이 A본은 제일 분량도 거의 완전하고 상태도 좋고 그림의 수준도 높고 하여튼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 내용 자체가 희귀하고 저자가 확실하고 작성연대가 1720년부터 1722년 사이로 거의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시 유형문화재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 ○○○ 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쭙보는데 저희는 도구 만드는 것에 관심이 많은데 이게 책으로 영인됐거나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있나요?

○ ○○○ 위원

영인본은 아니고 번역본은 나와 있습니다.

○ ○○○ 위원

번역본으로 나와 있어요? 제목이 뭐예요?

○ ○○○ 위원

이 책임니다.

○ ○○○ 위원  
소문사설?

○ ○○○ 위원  
'조선의 실용지식 연구 노트'이래서.

○ ○○○ 위원  
어디서 나왔어요?

○ ○○○ 위원  
휴머니스트에서 나온 겁니다. 판본 관련이라든가 다 조사해서 이미 번역  
본이 나와 있습니다.

○ ○○○ 위원  
꼭 사야겠네요.

○ ○○○ 위원  
백성호, 장유승. 이 팀들이 했습니다.

○ ○○○ 위원  
그냥 관심이 있어서요.

○ ○○○ 위원  
저도 이것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나와 있어서요.

○ ○○○ 위원  
이게 청나라 것과 다른가요?

○ ○○○ 위원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식으로 이시필이 자신의 스타일로 많이 바꿨  
습니다. 예컨대 오징어 먹물 이야기를 하는데 '가짜 문서를 만들 때 오징

어 먹물을 쓴다.’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게 3년 지나면 싹 사라진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재미있는데 실용적이라고 하지만 실용적이지 않은 내용들이죠. 이상한 것도 많습니다. 아까 그림에 새 잡는 저것도 사실 저렇게 못 잡거든요. 메추리 이렇게 지붕 들고 다니면서 새가 가까이 가면 다 날아가 버리는데. 저것을 그냥 들고 탁 앞으면 새가 잡힌다는 식으로, 약간의 아이디어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 ○○○ 위원

아이디어? 그러니까 실학자들 전 단계에 청나라 그런 것을 가지고 만든 것 같아요. 재미있네요.

○ ○○○ 위원

물고기 잡는 것은 아직 동남아 쪽에서는 저런 식으로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 ○○○ 위원

비슷한 방법들이 가끔 페이스북 같은 데 올라와요.

○ ○○○ 위원

동의합니다.

○ ○○○ 위원

이건 지정하고는 직접 상관없는 얘기인데 여기에 그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림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 ○○○ 위원

다는 아니고 몇 가지 일부만. 특히 이기용편에 주로 많습니다. 곡식 빵는 기구, 외다리방아 이런 것들이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 ○○○ 위원

그 그림이 번역서에도 들어가 있나요?

○ ○○○ 위원

네. 번역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는 아는데, 그림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 위원

그림을 보게 되면 이 그림은 지금 자세히 안 보이지만 가지고 왔을 가능성도 있어서요.

○ ○○○ 위원

그러니까 중국 거 있을 것 같아서.

○ ○○○ 위원

중국 것을 거의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쓴 것도 있고 약간씩 바뀐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 위원

알겠습니다.

○ ○○○ 위원

감사합니다. 재미있겠습니다. 동의합니다.

○ ○○○ 위원장

그러면 이 건은 한꺼번에 할까요, 건마다 할까요?

○ ○○○ 과장

세 가지니까 건마다 보시면서 바로 정하시죠. 그러면 이것은 가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5페이지 함허당득통화상현정론입니다.

<함허당득통화상현정론>

○ ○○○ 위원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님과 같이 조사를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함허당득통화상은 기화가 일명 조선 초기에 불씨잡변 같은, 정도전의 불교를 배척하는 그런 내용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대표적인 반론이라고 해서 현정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이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제일 빠른 것이 금속활자본 초조갑인자본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그것은 지정된 것은 아직 아니고요. 그 뒤로 바로 뒤에 남은 것이 16세기의 간본들. 그러니까 1530년대부터 1540년 사이에 특정 시기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아마도 문정왕후와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판본 상으로는 황해도 석두사 간본, 1544년 간본입니다. 이것을 내용이나 이런 것은 빠진 것은 없고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간행 관련된 인물 명단이 있습니다. 명단이 있어서, 사진으로 한 번 보여 주시죠. 거기 보면 예를 들면 판각을 한 사람, 목수 이런 사람들 인명이 나오고 그다음에 간기가 1544년에 황해도 학봉산 석두사에서 개판했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본문을 보다 보면 사진에도 나오지만, ‘혹녕刀’라는 한글로 판각된 게 있습니다. 보통 이 자리에 시주자 명단이 들어가는 편인데 이 사람은 각수 이름으로 들어있는 ‘학녕’이라는 사람하고 동일인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약간 학술적인 의미도 있고 해서 이것도 시기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데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이것보다 조금 앞선 시기가 연기사본, 1537년 것, 그다음에 신흥사본 지리산 1538년 것, 그런데 두 가지하고 이것까지 다 해서 거의 비슷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44년 것도 잘 안 남아 있고 그러니까 현재 동일본이 남아 있는 것이 한두 군데, 세 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했을 때 이걸 충분히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 ○○○ 위원장

질문 있으십니까?

○ ○○○ 과장

그러면 이것도 가결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30페이지 옥호빙입니다.

□ <옥호빙>

○ ○○○ 위원

법장사 소장 옥호빙은 명나라 도목이라는 사람이 편술한 중국 고전자료집이라고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총 72조목으로 짊막한 문장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한나라 때부터 명나라 초기부터 여러 전적 중에서 희귀하다 또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장이나 고사만을 가려 뽑아서 편록해 놓은 것으로 도목이 직접 지은 작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많이 소개되지는 않고 중국인 저술작품으로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의 아래 부분이 상태를 보면 훼손된 부분이 있고 글자는 살아있습디다만 전반적으로 인쇄 상태는 양호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수제면 아래에 소장인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것을 일부러 지우기 위해서 그랬는지 딱 사각으로 오려낸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훼손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다. 법장사 소장본은 간기가 있습니다. 1580년에 무안현에서 간행했다는 간기가 그대로 뒷부분에 남아있고 그런 목판본입니다만 이러한 동일본들이 고려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등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완전성이나 역사성에서는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조선 초기 유학자들의 어떤 정신세계와 학문 풍토를 살필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아쉬운 것이 중국의 문장가들의 작품들을 가려서 뽑아놓은 단지 편집해놓은 상태이고 도목의 자기의 창작적인 글이 들어가지 않은 그러한 내용이다 보니까 문화재로써 과연 한국 사람도 아니고 중국의 내용들인데 이것을 지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조사위원들이 불가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 위원장

이것이 조선 전기에 인기가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간행을 또 했다는 거죠. 그건 좀 흥미 있네요. 중국 책인데.

○ ○○○ 위원

시기적으로 보면 1580년이라서.

○ ○○○ 위원장

16세기라서 괜찮은 시기인데.

○ ○○○ 위원

충분한데, 그런데 내용이 한국적이고 독창성이 있어야 하는데 내용은 전해져 있고 그러는데. 그리고 다른 데 지금까지 지정된 바가 없습니다.

○ ○○○ 위원장

전례가 없으니까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조사자의 의견을 따라야겠죠.

○ ○○○ 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부결로 처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청자 상감 파어문 매병 관련한 내용입니다.

□ <청자 상감 파어문 매병>

○ ○○○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명칭은 청자 상감으로 했습니다. 고려 말~조선 초에 만들어지는 매병의 전형적인 양식이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쪽에 제시한 여기 보면 보원고나 의성고처럼 고려 말에 만들어져서 제일 늦은 것이 아마 보원고명 매병일 텐데요. 보원고는 1403년에 내자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제일 하한이 되는 편년 유물이 이것인데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고려 말부터 만들어졌다고 구분할 수 있어서요. 딱 거기에 해당하는 작품이고 실제 유물 색깔은 현장에서 저희가 찍은 것보다는 이 사진이랑 조금 더 가깝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편년 유물들에 비해서 유태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서 지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현장에서는 구분을 했습니다. 일단 문양도 여기 있는 물고기는 실제로 조선 초기 분청사기에도 많이 보이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것과 함께 나와 있는 이런 석화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다소 개성적이라서 그런 것들도 고려의 요인이었습니다.

○ ○○○ 위원

보수 흔적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 ○○○ 위원

특별한 것들은 없었고요. 바닥을 조금 갈아낸 건데 그것은 보수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별도로 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 ○○○ 위원

파어문이라는 게 파도하고 물고기하고 같이 있다는 의미인가요?

○ ○○○ 위원

네. 실제로는 그렇게 인식을 했는데 이런 표현 같은 경우는 딱히 파도라기보다는 약간 아지랑이처럼 보여서요. 일단 현장에서는 명칭은 파어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 위원

그러게요. 파도는 안 보이는 것 같아서.

○ ○○○ 위원장

이렇게 한 것을 파도로 생각했나보죠?

○ ○○○ 위원

이렇게 전형적으로 파도가 붙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 문양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약간 파도처럼 보였으나 이 문양은 파도라기보다는 아지랑이 같은 그런 거라서요. 아래쪽에 있는 이런 것들은 파도로 판단할 수 있어서 파어, 그다음에 대신 이 위에 있는 아지랑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조금 강하게 부각되어 있어서요. 명칭 자체는 파어 플러스 여기서까지 판단할 수 있으면 좋을 듯합니다만 선명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일단 파어문으로 현장에서 정리했습니다.

○ ○○○ 위원장

그 소장자가 금성문화재단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소장 경위 같은 것도 들으셨나요?

○ ○○○ 위원

소장 경위는 일단 저희가 현장에서 파악한 것은 돌아가신 창업주가 수집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돌아가시고 나서는 재단에 소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언제 구입했는지, 누구에게 구입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에서도 선명하게 파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 위원

그냥 어문은 어때요?

○ ○○○ 위원

저기가 도자기를 상당히 많이 소장하고 있어요.

○ ○○○ 위원장

이 재단에서요?

○ ○○○ 위원

물고기가 강한데, 그냥 어문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 ○○○ 위원장

명칭은 파어문으로 계속 하는 게 낫설기는 한데요.

○ ○○○ 위원

그래서 어문이 나올 것 같은데요.

○ ○○○ 위원

어문은 제목이 싱겁고.

○ ○○○ 위원

물고기 문, 좀 쉽게. 어차피 한자 들어갈 거니까.

○ ○○○ 위원

그런데 사족을 붙이자면 기본적으로 이 도상 자체는 물고기, 그러니까 파

도에 있는 물고기인데요. 고려 말부터 내려오는 말로는. 그러니까 파도도 굉장히 생략되고 대신에 본래 용이랑 같이 붙게 되는 이런 여의주 같은 경우가 여기 들어온 다음에 확대돼서 실제로 이 그림 자체는, 이 물이라는 자체는 파도나 이런 것들은 선명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맥락적으로는 파도입니다.

○ ○○○ 위원

위에 있는 것도 파도 아닐까요? 이렇게 크게 파도가 있는.

○ ○○○ 위원장

이 사진이 조금 작기는 한데요. 사진을 보니까 확실히 파도가, 파도 속에 헤엄을 치는 물고기 같아요.

○ ○○○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확실히,

○ ○○○ 위원

위에 큰 것도 큰 파도 아닐까요?

○ ○○○ 위원

그렇게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이 시기에 상감 청자들이 대부분 문양 양식 자체가 굉장히 크게 해체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기존에 상감 청자 만들어졌던 고려 후기에 14세기에 만들어졌던 것에 연장해서 현장에서는 파어문으로 파악했습니다.

○ ○○○ 위원장

조사자들이 명칭을 했으니까 동의하겠습니다.

○ ○○○ 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대로 가결로 진행하겠습니다.

○ ○○○ 위원

아니, 여기 앞에도 파도가 분명한 것 같아요. 앞에 그림에 두 개 찍으신

것 있잖아요. 앞 사진 두 개 보시면 오른쪽 사진을 확대해서 보면 분명하게 파도가 이렇게 있으면서 큰 게 파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파어문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 ○○○ 위원

이것은 다른 것들에 비해서 보존 상태나 굉장히 좀 광택도 좋았고 치밀했습니다.

○ ○○○ 위원

동의합니다.

○ ○○○ 위원장

그다음 것 또 있죠?

○ ○○○ 위원

거의 동류의 매병이었습니다. 다만 이 매병 같은 경우는 부분부분 수리된 데도 있었고 여기는 명칭을 보시면 상감 용문이라고 정리를 했는데 애초에 신청 들어왔을 때는 용봉으로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봉황이 어디 있는고 하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봉황 부리를 표시했는데 이것은 원래에는 여의주 같은 구름 장식이었고요. 그중에서 조금 튀어나와 있는 동그란 부분 앞에 완성된 그릇 위에다가 후대에,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일 수도 있는데 부리 모양을 같이 해서 이렇게 보시면 마치, 여기입니다. 원래는 애가 없는데 양쪽에 두 개의 십자 형태의 문양인데요. 그중에 일부에 부리를 새로 달아서 봉황처럼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정 신청이 들어왔을 때 명칭은 용봉문 매병이었습니다. 앞서 살펴 보셨던 매병에 비해서 유약이나 태토의 질도 많이 준수하지 못했고요. 중간중간에 보수된 흔적도 상당한 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여 지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현장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 ○○○ 위원

동의합니다.

○ ○○○ 과장

그러면 이것은 부결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 <분청사기 상감 모란문 장군>

○ ○○○ 위원

이것은 분청사기 상감 모란문 장군인데요. 이것도 같은 소장처에서 가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동류의 장군들은 여기 기존에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장군입니다. 장군은 보통 솔통으로 사용됐다고 하는데 동그란 원통형이 서 있는 경우도 있고 누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작은 보통 원통을 만들고 위를 오므리거나 아니면 접시를 따로 붙이거나 그렇게 제작을 합니다. 이러한 양식이 적기는 한데요. 비슷하게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 유물은 워낙에는 실제로 거의 이렇게 상감보다는 백토 분장이 강했습니다. 이 부분을 따라가다 보면 실제로 후대에 백토 층을, 제작 당시가 아니고요, 후대에 약간씩 걷어낸 듯한 그래서 이렇게 모란으로 간주되는 곳에 화엽을 만든 것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여 이 부분과 이런 끝에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날카롭게 갈아낸 흔적들이 있어서요. 그리고 그 위에 유약 층은 박락이 심한 편입니다. 특히 이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육안으로 봤을 때는 테두리 부분이 유약의 산화가 다른 곳에 비해서 지나치게 심해서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런 유물들의 동류에 외견과는 차이가 있다. 하여 몇 가지 수리 부분들도 종합해서 실제로 이 유물 같은 경우는 서울시 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현장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 ○○○ 과장

이것도 부결로 처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 <분청사기 선각박지철채 모란당초문 병>

○ ○○○ 위원

분청사기 선각박지철채 모란당초문 병입니다. 이 유물은 전체를 백토로 분장한 이후에 그다음에 문양의 배경이 되는 곳의 백토를 넓게 긁어내고

그 위에 검은 안료 칠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런 선각박지를 한 다음에 철채를 하는 경우는 실제로 남아 있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문양의 완성도나 이런 것들은 낮더라도요. 일단 희소하기는 합시다만 이번에 저희가 조사한 유물 같은 경우는 이 위에 병목과 본체는 서로 다른 유물로 파악했습니다. 구연부 같은 경우에 상감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동류의 유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출토품이고 휘기, 그러니까 무덤에 넣을 때 주로 주둥이를 깨서 묻기 때문에 주둥이가 남아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일부 남아 있는 것들을 보면 실제로 이렇게 윗면에 상감을 해서 넣는 것은 철화 분청자랑 주로 붙는 사례고요. 이런 친구들은 조금 다른 경우라서 유심히 봤는데 중간에 이렇게 손을 넣어서 보면 이 부분에 걸리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판단해봤을 때,

○ ○○○ 위원장

수리 부분이 걸리는 건가요?

○ ○○○ 위원

네. 실제로 외면은 어떻게 해서 맞췄는데요. 안쪽에 있는 두께까지는 맞추지 못해서 이 백색이 있는 부분의 아래쪽과 위쪽은 서로 다른 유물입니다. 그리고 이 자체로도 중간중간에 조금씩 손을 댄,

○ ○○○ 위원

다르게 보이네요. 다르게 보여요.

○ ○○○ 위원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지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당초 문 할 때는 어떤 때는 실사 변에 문 자 쓰고 앞에서는 그냥, 부결은 다 문 자로 썼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하나를 통일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 ○○○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점에서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불가에는 실사변을 넣고 통과에는 그냥 문 자로 썼고.

○ ○○○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들은 다 정리하겠습니다.

○ ○○○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어요. 여기까지 한 시간 반을 하셨어요. 10분 정도 쉬겠습니다.

(정회)

(속개)

○ ○○○ 과장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송석원 시사야연도입니다.

□ <김홍도 필 송석원시사야연도>

○ ○○○ 위원

제가 발표를 하겠는데요. 참고로 이 다음에 나오는 거랑 이게 결국은 하나의 유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발표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홍도 필 송석원시사야연도인데요. 이것은 원래 옥계청유첩이라고 하는 첩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계청유첩의 나머지 부분은 소재가 파악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다행히도 옛날에 그것이 전체가 출판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것을 한 소장자가 가지고 있을 때 보았다는 증언들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림 두 개가 원래 옥계청유첩에 속해 있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옥계청유첩은 뭐냐면 조선 후기에 평민 문학, 중인 문학이 굉장히 활발해지는데 그중에 천수경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별장이었던 송석원이 있는데요. 지금 옥류동에 있습

니다. 송석원에서 시회를 여러 번 열었는데 그중에 1791년 6월 15일에 열렸던 시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제작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8명이 참여를 했는데 8명의 시문이 수록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첩 맨 앞에 첫 번째 김홍도 그림, 두 번째 이인문 그림이 수록이 돼서 이게 성첩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유명한 문인이죠. 마성린이라는 사람이 이 첩을 나중에 보고서 그것에 대한 글을 씁니다. 그것이 첩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것이 약 8년 후인 1797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성린의 문집에도 같은 내용이 수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성린의 글에 의하면 이것을 이 시사, 옥계청유 시사회에 참여했던 한 사람이었던 김의현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것을 보고 이 글을 마성린이 지었다고 하고 있고 거기에 김홍도의 그림과 이인문의 그림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 왼쪽 상단에 제문이 쓰여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마성린이 쓴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미산옹이 바로 마성린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쓴 것은 1797년에 이 화첩을 보고 마성린이 글도 쓰고 이 그림을 그렸을 때 그 옆에다 ‘단월’하고 인장을 찍은 건 이 그림의 제작 시기인데 이 그림이 과연 1791년 옥계청유첩이 제작이 된 시점과 동시에 제작이 됐을 텐데 그게 그 모임하고 일치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보통 이런 경우는 모임이 있고 나서 그것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김홍도의 행적을 봤을 때 이것이 한참 뒤로 갈 수는 없습니다. 김홍도는 1791년 12월부터 연풍의 현감으로 제수를 받아서 내려가거든요. 거기서 한 1년 반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1791년에 6월에 이 모임이 있고 그다음에 12월 상간에 김홍도가 그림을 그렸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림의 화풍이나 필체로 봤을 때 김홍도의 그림이 분명한데, 옆에 달이 떠 있죠. 그래서 김홍도는 그림을 굉장히 분위기 있게 주변 경무를 알아볼 수 있게 그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글의 내용에 의해서 이것이 송석원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글씨가 하나 더 쓰여 있는데 ‘김씨운림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확히 누가 썼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김씨 서옥이라는 게 아마도 이 화첩을 가지고 있었던 김의현이 아니겠느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작품에 대한 얘기고요. 지정 여부는 나중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 &lt;이인문 필 송석원시회도&gt;

66페이지로 가시면 같은 첩에 들어있었던 이인문이 그린 송석원시회도가 또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는 송석원시사야연도, 송석원시회도라는 제목은 다 후대에, 최근에 연구자들이 붙인 제목입니다만 이 그림이 워낙 유명해서 통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작 연월은 거의 비슷하고요. 이인문은 거기에 재밌는 글을 써놨어요. 두 번째 그림 맨 오른쪽에 있는 글이 이인문이 쓴 것이고요. 실제 이인문의 다른 그림에 있는 필체와 서체가 같습니다. 여기에 흥미롭게 뭐라고 썼느냐면 이인문이 이것을 단원의 집에서 그렸다고 되어 있어요. 단원의 집에서 그렸다. 사화단원소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추정해봤을 때도 옥계청유첩 모임이 있고 나서 어느 시점 후에 이것을 첩으로 만들어야겠다 해서 그림 주문이 들어가서 이인문하고 김홍도가 김홍도의 집에 가서 이것을 그려서 나중에 글하고 성첩을 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성첩이 된 후에 1797년에 마성린이 이 두 그림과 나머지 첩을 봤기 때문에 그 옆에, 이인문의 글 옆에다가 역시 미산옹 해서 글씨를 써놨죠. 그래서 정선·심사정 이후에 훌륭한 화가들이 있었는데 이 두 그림을 보니까 이인문의 글도 굉장히 뛰어나다. 이런 칭찬 글을 써놨습니다. 역시 이것도 굉장히 능숙한 필체이고요. 앞에 김홍도 그림과 달리 이인문 그림은 이게 정확한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에 송석원이라고도 써놨고요. 어느 정도 그 경관을 알아볼 수 있게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실경산수라고 부르는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그림이 있고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두 그림이 1791년 정확히 우리가 연대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 언저리에 제작된 것임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고요. 조선 후기 문화사에서 중인 문학이 굉장히 중요해 지는데 그 모임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역사적인 가치도 있고 그다음에 두 그림이 다 예술성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회화사 하는 사람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지정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작품의 제목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대에 붙인 것이기 때문에 옥계청유첩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란이 조사위원들 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옥계청유첩의 나머지 부분의 행방은 알 수가 없고 그게 결국은 당

분간 안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 보류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통용이 되는 이 두 작품을 묶어서 김홍도 필 송석원시사야연도 및 이인문 필 송석원시회도 이렇게 지정 명칭을 붙이고 나중에 옥계청유첩이 혹시라도 출현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다 묶어서 옥계청유첩이라고 다시 이름을 바꾸든지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역사적으로 두 그림이 계속 같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의 유물로 간주를 해서 이름이 조금 길더라도 하나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 위원장

한 건으로 지정하자는 거죠?

○ ○○○ 위원

네, 그렇죠.

○ ○○○ 위원

그러면 옥계청유첩으로 해야 돼요?

○ ○○○ 위원

그러니까 그게 논란이 있는 것이죠. 옥계청유첩이라고 하면 좋겠는데 나머지 옥계청유첩이 나올지 안 나올지 어디 지방에 가서 나올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복잡해지지 않느냐는 거죠.

○ ○○○ 위원

그런데 두 개를 합치면 이름을 붙이기가 어렵잖아요.

○ ○○○ 위원

이름을 그래서 이렇게 쪽 써요. 김홍도 필 송석원시사야연도 및 이인문 필 송석원시회도.

○ ○○○ 위원

너무 긴데.

○ ○○○ 위원

그런데 이게 요새 붙이는 방법이거든요.

○ ○○○ 위원장

그래요? 작가가 다른데도, 이인문과 김홍도가 다른데도 같은 화첩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 ○○○ 위원

그렇죠. 통상적으로 화첩에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화첩을 알면 화첩 이름으로 하는데 지금 화첩 이름을 알지만 이게 실물이 없기 때문에, 실물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이것을 100%, 지정하는 입장에서 하기가 좀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 ○○○ 위원

만약에 ‘김홍도 필 송석원시사야연도 및’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조성연대는 1791년으로?

○ ○○○ 위원

그러니까 이게 또 논란이 있는 겁니다. 1791년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만 김홍도가 연풍에 가서 그러서 보내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황이 있기 때문에.

○ ○○○ 위원장

조선 후기, 18세기 이렇게는,

○ ○○○ 위원

그것은 아니고 1791년이라고 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 ○○○ 위원

단정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이라고 붙일지 아니면 조선 후기라고 하든지, 조선 후기라고 해도 됩니다.

○ ○○○ 위원

저는 만약 그렇다면 1791년경이 더 나올 것 같은 생각은 들고요. 양보하고 싶지 않아서.

○ ○○○ 위원장

연도를 이렇게.

○ ○○○ 위원

아까 김광균 경우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냥 일제강점기라고 했는데 만드는 사람은 그 애 머리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딱 그때 만들어서 그때 썼기 때문에 1914년이라는 것을 쓰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서 그 연도를 확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 위원장

여기 조사자들도 1791년경이라고 썼어요.

○ ○○○ 위원

저희가 조사를 하고 나서 이게 기한이 오래 전인데 두 사람이 따로 썼고 제가 이것을 나중에 보면서 몇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그래서 죄송하지만 조금 통일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만큼 현재 학계에서도 제작 연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 ○○○ 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지정을 해놓으면 그냥 이 연대는 1791년이 되거든요.

○ ○○○ 위원

글쎄요. 저희가 우려를 하는 거죠.

○ ○○○ 위원장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 ○○○ 위원

네. 조심스럽습니다.

○ ○○○ 위원

그래도 1791년이라고 파악이 됐기 때문에 지정할 수 있어서 경보다는 1791년으로 해놓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 ○○○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문제죠.

○ ○○○ 위원장

조사하신 위원님이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조사자들,

○ ○○○ 위원

‘경’이 좀 낫설다면 ‘조선 후기’로 해도 되고요. 18세기로 해도 되고요.

○ ○○○ 위원

그것은 조금 모호한 것 같아요. 1791년이 제일 와 닿아서.

○ ○○○ 위원

그런데 조선 후기는 너무 기니까요. 너무 무책임한 것 같고 18세기 말.

○ ○○○ 위원

만약 그러면 많이 양보해서 1791년경.

○ ○○○ 위원

그런데 옥계청유첩이라는 것은 지금은 찾아지지 않지만 영인이 되었으면 뭔가 하여튼,

○ ○○○ 위원

그 사진이 이렇게 여항문학전집에 실려 있기는 합니다.

○ ○○○ 위원

그 자체가 현재 찾지 못하더라도 이름을 쓸 수 있지는 않겠어요? 그때 그 안에 있었으니까, 그 제목으로 썼을 테니까.

○ ○○○ 위원

그런데 옥계청유첩이라고 했을 때는 옥계청유첩이 다 있어야 옥계청유첩이지 않습니까?

○ ○○○ 위원

(옥계청유첩) 중.

○ ○○○ 위원

그 명칭을 여기에요?

○ ○○○ 위원

거기에 쓰고서 중,

○ ○○○ 위원

그러면 명칭이 더 길어지는 거죠. 옥계청유첩 중 김홍도 필, 그러니까 저희가 그 생각도 했는데.

○ ○○○ 위원

아니, 왜냐면 삼국유사라든지 시리즈가 있는 것도 거기에 한두 개가 빠져도 이름을 그냥 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 하고 옥계청유첩이라고 딱 하고,

○ ○○○ 위원

김홍도, 이인문 뭐라고 쓰는 게 있지 않아요? 그 이름을 다 써줄 수가 있을까요?

○ ○○○ 위원

그런데 첩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아야 하는데 하나, 두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첩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 ○○○ 위원

첩이 몇 개가 있어요?

- ○○○ 위원  
첩이 전체가 18면인가 그렇습니다.
- ○○○ 위원  
18면이면 꽤 많아요.
- ○○○ 위원  
이건 두 개밖에 없잖아요.
- ○○○ 위원  
아니, 그래도 나중에 찾아지면 거기에 넣으면 되니까. 대방광불화엄경 해  
놓고 많이 빠져도 그것을 그냥 이름을 쓰거든요. 이것은 제목이 있는데  
빼놓고서 김홍도를 쓴다는 것은 조금 그런데요.
- ○○○ 위원장  
첩 이름만 쓰자는 말씀이죠?
- ○○○ 위원  
네. 1791년경 옥계청유첩. 왜냐면 여기 읽어보면 김홍도는 이게 다 들어  
가니까요.
- ○○○ 위원  
어쨌든 이게 회화로서 그동안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두 작품이고요. 참고  
로 작년인가, 제작년에 경매에 나왔는데 두 작품을 합쳐서 ○○○에 팔린  
작품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그동안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송석  
원시사야연도, 그리고 도판이 사방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도 저  
희가 느꼈습니다. 그것을 다 걷어내고 옥계청유첩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오해가 일어날 수 있어서.
- ○○○ 위원  
결국은 이 그림 두 개만 팔아먹은 거 아니겠어요?

○ ○○○ 위원

나머지는 가지고 있고.

○ ○○○ 위원

좋은 것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으면서 이 두 개가 비싸니까 팔았을 것 같은데.

○ ○○○ 위원

이것을 봤다는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소장자가 원래는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게 그림이다 보니까 이것을 파첩으로 해서 두 개를 액자로 꾸며놓고 지금 액자로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설에 의하면 첩으로 있었다고 그러고 일설에 의하면 낱장으로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낱장을 친한 사람들한테 하나씩 줬다는 소문도 있고, 이게 계속 개인 소장이었거든요, ○○의. 그래서 제가 그 큐레이터하고도 계속 연락을 해봤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이 그림 두 개만 계속 노출이 되고 나머지는 노출이 안 돼서 행방을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소장자 사후에 이게 시장에 나와서요. 소장자는, 글썬요.

○ ○○○ 위원

아들이 했겠죠.

○ ○○○ 위원

그렇게까지 뭐 한데... 어쨌든 이렇게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저도 그래서 이 옥계청유첩을 찾는 데 한참 걸렸습니다. 연구자들이 그냥 카더라, 카더라 해서 다 숫자가 다르고 그래서 결국은 가서 보니까 그게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이 굉장히 이상하게 들어가 있어요. 여항문학전집이라고 하는 엄청난 프로젝트에 유독 그것만 아무런 근거가 없이 사진이 달랑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때 그것을 하면서 그때 개입이 된 분이 유홍준 선생님께서 이것을 발견하고, 발견이라기보다는 가치를 부각시키면서 거기에 사진으로 넣자고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전집과는 조금 이상한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게 지금은 고맙죠. 그게 유일한 자료니까요. 그냥 사람들 다 한두 줄씩만 내가 봤다 이러는데 사진이 있으니까 옥계청유첩의 전모가 그나마 그것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명칭 때문

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옥계청유첩이라고 그러면 가장 학술적으로  
는 맞지만 이게 지금...

○ ○○○ 위원

맞는 것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 ○○○ 위원

그런데 나머지 것이 없기 때문에.

○ ○○○ 위원

나머지 나올 거예요.

○ ○○○ 위원

그러니까 중.

○ ○○○ 위원

아니, 중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방광불화엄경 하고서 빠져도 그 이  
름 그대로 쓰잖아요.

○ ○○○ 위원

그런데 그것은 권 몇 권 이렇게 쓰거든요. 각각 이렇게 쓰니까. 그건 선생  
님이 하시는 대로 아니면 하나하나 해서 두 건으로 하고 나중에 옥계청유  
첩이 나오면 거기에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같이 넣으면,

○ ○○○ 위원장

그것도 참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두 건으로 올라왔잖아요.

○ ○○○ 위원

그런데 그건 신청자가 두 건으로 올린 것이고요.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은  
동일한 유물이기 때문에,

○ ○○○ 위원

한 건이에요.

○ ○○○ 위원장

그러니까 설명에서 얘기를 하면서 옥계청유첩이나 여기다 하고서,

○ ○○○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시왕도에서 두 개가 있다고 그래서 이게 같은 데 있는 데 따로 한다는 아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 ○○○ 위원장

아니, 왜냐면 시왕도 같은 경우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게 같은 작가잖아요. 같은 절에 명부전에 있으면. 그런데 이 경우에는 작가가 다르단 말이죠.

○ ○○○ 위원

이건 주문자가 같죠. 그러니까 같은 첩에 들어갔다는 건 성첩을 할 때,

○ ○○○ 위원장

주문자가 같다는 말씀이죠?

○ ○○○ 위원

네,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젝트죠.

○ ○○○ 위원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옥계청유첩이에요. 다른 걸로 하면 안 되죠.

○ ○○○ 위원장

제목이 아까 작가 이름을 다 써주는 게 긴 듯해서요.

○ ○○○ 위원

그런데 그동안 회화를 지정할 때 보면 필자가 이상하게 들어가 버렸는데 요새는 어쨌든 국가지정 할 때는 필자를 꼭 넣습니다. 서예에서 넘어온 건데. 그래서 어쨌든 김홍도 필까지는 들어가야 하고 그다음에 지금 널리 알려진 이 작품의 제목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제목을 근래에 와서 붙인 것인데 이게 널리 회자가 돼서 관습이 되

어버렸고, 이인문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및 자를 되도록이면 및 자를 안 쓰려고 그러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쓰거든요.

○ ○○○ 위원장

안 써야 되죠. 그러면 김홍도, 이인문 필 옥계청유첩 이렇게 하면 좀 간단해지나요? 저자를 앞에,

○ ○○○ 위원

그런데 그러면 옥계청유첩을 김홍도와 이인문이 된 거가 돼서.

○ ○○○ 위원

안 돼요. 옥계청유첩이 제일 중요해요.

○ ○○○ 위원장

옥계청유첩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화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셔서 화가 이름이 제목이 들어가는 것이 요즘의 청에서도 그렇게 한다면,

○ ○○○ 위원

그러니까 이건 타협책이죠. 옥계청유첩이 다 완벽하게 있어서 그냥 그걸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사실은 옥계청유첩의 주된 내용은 거기에 참여했던 문인들이 쓴 글이기 때문에 이 그림은 부가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나머지가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옥계청유첩이라고 했을 때는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상황이죠.

○ ○○○ 위원

민화 같은 경우도 한 장씩 뜯어서, 병풍을 의도적으로 뜯어서 이렇게 팔아먹은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와서 박물관에 유물 신청을 하면 심의를 하면서 다 잘라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채색 지도라고 해서 폼 잡고 갖고 왔는데 일본에서 만들었던 책지 속에 간지로 끼어 있는 지도만 싹 뜯고 그다음에 그 안에 컬러로 된 엽서만 싹 뽑아서 와서 팔아먹으려고 들어오는 것은 웬만하면 다 구입 취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떻게 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 ○○○ 위원

따로따로 하는 건 나중에 첩을 다 분해시키는 격.

○ ○○○ 위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 자체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어쨌든 화첩을 뜯어서 날개로 해서 다 팔아먹었던 찢든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보류를 시킨다든가 그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은 이 시화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는데 화첩 자체에 오늘 같은 논란을 만들어낸 원인을 제공했고 화첩이 가지고 있는 가치 자체를 훼손시킨 거잖아요. 물론 그림 하나하나를 보면 회화사 쪽에서 그림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경종을 울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 위원

굉장히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과거에 워낙 특히 첩 같은 경우는 파첩이 되고 다시 성첩을 하면서 재구성을 하고 이런 게 조선시대부터 관습적인 게 많아서요. 그것을 콜렉터가 마음대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 조선시대부터요. 그 부분을 아주 최근에 예를 들면 업자나 소유자가 나쁜 의도로 이것을 분철했을 경우는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보류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경우는 사실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것이 별도의 액자로 됐다는 것이 한 50년 됐을 거예요. 별도 액자로 돌아다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만약에 보류시켰다고 그랬을 때는 예를 들면 공평하지 않다고 문제 제기가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 ○○○ 위원

지금 상태에서도 사실은 이게 지금 경매되는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이게 지정이 되면 거의 배 이상으로 분명히 뿔 거라고요. 그런 문제도 발생하는 것 같아요.

○ ○○○ 위원

이것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어느 정도 의견은 나왔을 것 같고요. 의견이 다 다르니까 뭔가 확실히 정해놓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 ○○○ 위원장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지금 네 분의 조사자들이 같이 조사를 하지 못하셔서 ○○○ 위원님 말씀처럼,

○ ○○○ 위원

조사는 같이 했습니다.

○ ○○○ 위원장

같이 하셨어요?

○ ○○○ 위원

같이 하고 이 보고서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서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이미 저희가 이 얘기는 했어요.

○ ○○○ 위원장

이 말씀을 나누셨어요?

○ ○○○ 위원

네. 그래서 그때 그 조사를 하면서 명칭을 일단 한 권으로 하는 게 대원칙이고 분리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명칭에 대해서는 일단 옥계청유첩으로 가는 게 학술적으로 맞기는 하나, 지금 이 구체적인 사례로 봤을 때는 조금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 ○○○ 과장

혹시 결정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방법은 여러 개 있는데 우선 소위원회 를 구성해서 조금 더 논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 ○○○ 위원장

그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소위원회 구성해서 다시 명칭과 이것에 대해

서 좀 더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기에는 부담스럽네요.

○ ○○○ 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이것은 우선 보류를 해놓고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선 보류로 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혹시 소위원회 명단을 여기서 구성하실지 아니면 저희가 구성해서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할까요?

○ ○○○ 위원장

예. 그러시죠.

○ ○○○ 위원

위원장, ○○○ 위원님 포함해서 하면 되는 거죠.

○ ○○○ 과장

그렇게 해서 위원장님께 소위원회 구성원 권한을 위임해 주시면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 ○○○ 위원

네. 위원장님께 위임합니다.

○ ○○○ 과장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동태 나전칠 운룡문 화병입니다.

<동태 나전칠 운룡문 화병>

<도태 나전칠 공작문 화병>

<나전칠 산수문 사각상>

○ ○○○ 위원

지금 동태 나전칠 운룡문 화병부터 시작해서 세 건이 같은 내용이거든요. 이게 다 서울공예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인데 김진갑 선생이라든지 나

머지 전성규 선생님의 작품인데 공예박물관이 이것을 굉장히 많이 수집을 해서 현재 있는 이 유물들이 이 사람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어떤 것을 지정해야 하는지도 정해지지 않았고 김진갑 이라고 하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우리 인간문화재라고 했던 사람들 것도 아직 지정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지금 여기 조사자들이 쓴 것처럼 보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세 가지가 다 연대도 확실하고 작업도 확실하고 일제강점기에 나전칠기가 변화된 게 이와 같이 동에다가 한다든지 도자기에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너무 유물들이 많고 김진갑 선생님의 것은 몇 개가 있는지 확인도 안 돼요. 전성규 선생은 조금 오래 되기는 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너무 많아서, 지금 여기 71쪽까지 있는 것은 다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저도 동의합니다.

○ ○○○ 위원장

지정 보류라고 하니까 부결이네요.

○ ○○○ 위원

네. 부결로 해놓고 나중에 공예박물관에서 조사를 조금 더 많이 해서 완벽하게 이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다시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불가로 해 주십시오.

○ ○○○ 위원장

그러면 다 부결입니까?

○ ○○○ 위원

부결입니다.

○ ○○○ 과장

세 건이네요. 11번, 12번, 13번 건에 대해서 전부 다 부결로 처리하겠습니다.

○ ○○○ 팀장

선생님, 의견이 하나 있는데요. 불가를 하면 재신청이 안 됩니다. 만약에

10년이든 뒤에,

○ ○○○ 위원

그러면 보류로 해놓고.

○ ○○○ 팀장

보류를 해서 의견을 전달하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 위원

그러면 보류로 해놓고 전수조사가 되고 나서 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전수조사가 되고 가치가 있는 것 위주로 해서 다시 올리면 좋겠다고, 시간을 갖고 조사해서.

○ ○○○ 팀장

여기서 부결하고 등록문화재로 하든가.

○ ○○○ 위원

등록문화재도 안 돼요. 왜냐면 시기가 너무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보류를 하고 전수조사를 하면 좋겠다고 해 주시면 됩니다.

○ ○○○ 팀장

의견은 그렇게 제시하겠습니다.

○ ○○○ 과장

알겠습니다. 113페이지 표범연화경입니다.

□ <표범연화경>

○ ○○○ 위원

표범연화경은 크게 다섯 가지 계통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가장 일찍 나오는 게 성달생판본계라고 해서 다섯 종류로 해서 총 발간 종수로 하면 170여 종을 보고 있는데 이것은 1665년에 경상도 안음에 덕유산이라고 있는

데 그 덕유산에 절이 영각사라고 있었습니다. 그 영각사에서 일부만 개간을 한 것인데 이것을 18세기에 다시 후쇄한 판본이고 나머지 것들은 다른 판본, 어느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만 갑인자본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계통에 해당되는 것의 번각판본으로서 7권 7책 완질을 가지고 있지만 판도 다 다른 것이고, 다른 시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불가로 조사위원들은 정했습니다.

○ ○○○ 위원

동의합니다.

○ ○○○ 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부결로 처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제주십이경도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 <제주십이경도>

○ ○○○ 위원

이것도 회화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현재 12점으로 되어 있고요. 낱폭으로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상하게 붙어있는데 어쨌든 그림의 형식은 다 동일하고요. 위에 화기가 쓰여 있고요. 네모난 칸을 치고 화기가 쓰여 있고 밑에 그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은 다소 노화가 됐지만 전체적으로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병풍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원래의 순서 같은 건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걸 이미 1970년부터 민화 같은 것으로 소개가 됐고요. 최근에 옥션에서 이것이 낙찰이 된 것입니다.

이 작품은 조선 후기에 제주 목사를 지냈던 이익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업적을 남겼는데 그중에서도 제주도의 열 군데 명승을 골라서 그것을 그림으로 제작을 한 후에 탐라십경도라고 만들어냈습니다. 그 후에 이익태가 만들어낸 탐라십경도가 계속 반복해서 제작이 됐고 이 작품도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의문이 탐라십경인데 왜 여기는 12폭이냐고 될 텐데요. 두 장면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목도성지도하고 화북진 두 군데가 추가가 됐는데 오히려 추가된 게

흥미로워요. 제주목도성지도 같은 경우는 현재 제주 관아를 이렇게 상세하게 그린 게 잘 알려진 탐라순력도의 한두 장 빼고는 없는데, 여기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건축물이 그려져 있어서 지금 제주도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복원사업도 하고 그럴 정도로. 특이한 게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잘 알려진, 지금 아마 보물로 지정이 된 이영상이라는 제주목사가 제작을 한 탐라순력도하고 화풍이나 구성 같은 건 상당히 비슷해요. 그다음에 제작 연대를 따져봤더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탐라십경도라는 것이 그 후에 계속 반복해서 제작이 되고 19세기 되면 꽤 여러 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비교했을 때는 화풍이나 이런 게 조금 다른데 오히려 18세기 초에 제작이 된 탐라순력도하고 화풍 상에 유사점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지도의 연대를 판정할 때 쓰듯이 이 그림에 등장하는 건물의 제작 연대라든지 불이 탄 연대 이런 것을 가지고 연대를 좁히는데 공교롭게도 추가된 두 작품의 그런 건물들이 여러 개가 나와서 그것으로 유추를 해봤을 때는 18세기 중반 정도로 올라가지 않겠느냐는 게 전문연구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원래는 소형 병풍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작품은 제주도의 실경을, 제주도의 독특한 화풍을 유지하면서 그려낸 그림이고 거기에 중요한 두 지역이 추가되어 있고 탐라십경도가 처음에 그려진 후에 어떻게 변형이 되어 갔는지 중간 성격을 드러내 주는 중요한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작 연대를 18세기 정도로 보면서 지정문화재로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을 내렸고요. 역시 지정 명칭은 이것이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제주십경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 ○○○ 위원

탐라십경도가 아니고요?

○ ○○○ 위원

통상 저희들이 나머지 후대에 나오는 거 민속박물관 이런 것을 다 제주십경도라고 부르거든요. 그 당시에 도 제주십경도라고, 그러니까 제주, 탐라가 같은 말이지만 그래도 최초에는 탐라십경도라고 제작이 됐지만 그 후에 제주십경도로 널리 쓰이기 때문에 일단 제주십경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다. 그래도 제주십이경도가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단양 팔경, 이런 것처럼 팔경, 십경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유명사로 봐야 할 것이고 거기에 작품이 추가된다고 해서 우리가 단양십경이다, 단양십이경이다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일단 제주 십경도라고 하는,

○ ○○○ 위원

십이경?

○ ○○○ 위원

십경도라고 하는 기존에 정착이 된 주제로 명칭을 붙여야 한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 ○○○ 위원

그러면 십이경도가 아니에요?

○ ○○○ 위원

네.

○ ○○○ 위원장

그러면 명칭이 십경도로 바뀌는.

○ ○○○ 위원

그런데 열두 폭인데 십이경도로,

○ ○○○ 위원

제주십경도인데 장면은 열두 장면인 거죠.

○ ○○○ 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119페이지에 검토대상에서 십이경도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지정 명칭은 제주십경도로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죠?

○ ○○○ 위원

신청자가 십이경도로 신청을 한 겁니다.

○ ○○○ 위원

추가된 두 개가 십경에는 없는 거잖아요.

○ ○○○ 위원

네. 없는 거예요.

○ ○○○ 위원

그러면 십이경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 ○○○ 위원

논리적으로 십이경이 맞는 것 같은데.

○ ○○○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물이 십경이 아니라 십이경으로 나와 있는데 열 개로 지금, 두 개 추가를 했다는 것도 확실하게 사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러난 상태였고,

○ ○○○ 위원

십이경도가 나올 것 같은데요.

○ ○○○ 위원

십경도에서 그렇게 변해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 ○○○ 위원

보여준다면 오히려 십이경도가.

○ ○○○ 위원

그렇죠.

○ ○○○ 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면 회화사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어떤 기준에 명칭으

로 예를 들면 소상팔경도가 두 폭이 더 들어갔다고 해서 소상십경도로 할 수는 없잖아요.

○ ○○○ 위원

아니요. 소상팔경도는 팔경도로 가는 거고 나중에 새로이 나타나면 거기에 맞춰서 갈 수도 있는 거죠.

○ ○○○ 위원장

아니요. 만약에 두 장면이 추가됐다고 해서 그 명칭을 우리가 소상십경도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면 기존에 소상팔경도라는 명칭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 ○○○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탐라십경도 했으면 그것을 십이경도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 ○○○ 위원

탐라가 아니면 제주는 십이경도죠.

○ ○○○ 위원

탐라가 아니고 제주기 때문에.

○ ○○○ 위원

아니, 그 후에 조선시대에 이미 그러니까 탐라랑 제주랑 같은 말이기 때문에 제주십경도라는 말을 씁니다, 조선시대에.

○ ○○○ 위원

조선시대 때요?

○ ○○○ 위원

네.

○ ○○○ 위원장

여기 읽어보면 제주십경도라는 명칭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이것도 소위원회에서 이 안건과 같이 하기로,

○ ○○○ 위원

아니, 이것은 확실한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시왕도가 있잖아요. 시왕도는 열 명의 왕을 그리는데 예를 들면 누군가 거기다 한두 왕을 더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십일왕도, 십이왕도라고 부르나요? 그것은 시왕도의 한 예외적인,

○ ○○○ 위원

시왕도가 열두 개는 없잖아요.

○ ○○○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됐을 때.

○ ○○○ 위원장

예를 들면 그렇게 정해진 명칭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건도 일단 보류로 하시고 소위원회에서 같이 의논해 주시면 저희가 부담이 없죠.

○ ○○○ 위원

그렇지만 열두 쪽이면 십이도지.

○ ○○○ 과장

알겠습니다. 이것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사전심의 절차입니다.

■ 국가 지정문화재 사전 심의

□ <의친왕비 복식 일괄>

○ ○○○ 위원

137페이지, 138페이지. 사실 저는 복식 전공이 아닌데 같이 갔다는 죄로, 유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친왕의 다섯째 딸, 이해경 씨 현재도 생

존해 계신 분인데 2003년에 이런 유물들을 기증을 쪽 해서 전체 5건 8점입니다. 2003년, 2004년, 2009년, 2020년 해서 하나씩 기증해서 나와 있고 사진을 먼저 보여주시죠. 첫 번째 나오는 그림인데, 원삼 1건인데 3점이 잡힌 게 뭐냐면 원삼에 들어가는 밑에 띠가 워낙 커서 길이가 길어서 사진에 저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저기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저런 원삼이 색깔이 녹색이기 때문에 녹원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의친왕비가 착용했던 것으로 1951년에 다섯째 딸인 이해경 씨한테 다 넘겨줍니다. 옷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남아 있던 것이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대대, 아까 밑에 큰대 뒤에서는 계사길레 시의화궁팔이라고 목서가 되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1893년도에 의친왕과 그때 당시에는 의화군이었죠. 그 당시에 가례를 행할 때 사용했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위에 보면 사진이 나와 있는데 사진에도 지금 목서가 안 보이는데 현장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 목서가 보입니다.

두 번째 사진을 내려봐 주시죠. 이 아래에 있는 당의인데요. 이것도 1945년까지 의친왕비가 실제 사용했던 것으로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2004년도에 어깨 부분에 약간 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보수를 했다는 흔적이 있기는 하지만 큰 문제는 없고요. 이것은 아래쪽에 사진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홀당의를 두 개를 붙여서 하나로 만든 형태라고 복식하시는 분이 이야기를 했고요. 봉황문에 금박이나 이런 것들이 화려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의친왕비 스란치마가 1건 2점인데요. 왼쪽에 있는 것은 완성된 스란치마고요. 스란이라는 것이 지금 사진에서 보면 밑에 금박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저기에 봉황문으로 금박을 찍었고요. 오른쪽에 보면 미완성인데 저것은 사실 옷을 세탁하거나 할 때 한복은 저기를 다 뜯습니다. 뜯어서 세탁을 하고 다림질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밑에 스란 부분이 반쪽밖에 없어요. 저것을 뜯어서 다른 데 썼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잘라서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데 현재로서는 남아 있는 부분은 그대로 잘 남아있고요. 아래 왼쪽에 있는 화관은 굉장히 화려한 화관입니다. 거기에 금비녀가 실제로 두 개가 달려 있고 정면에 쌍희자가 새겨 있는 부분이고 실제 의친왕비가 직접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호리병 노리개인데 노리개 위의 끈 부분에 보면 아래쪽에 호리병 세개가 있고 밑에 술이 달려 있는 형태입니다. 삼작이고 1945년까지 계속

착용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당시의 원형 유지 상태는 당의를 보니까 보수한 것 빼고는 아주 양호한 상태로 되어 있고요. 대한제국 당시 황실 자산, 의친왕 이강의 부인인 의친왕비가 직접 착용했던 것이고 그게 딸에게 전달되어서 전승되다가 경운박물관으로 기증이 된 상태입니다. 황실 유물이기 때문에 실제 조선시대 이야기를 하면서 조선왕조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대한제국 때 유물이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현재 오륜대순교자박물관에서 의친왕의 유물 중에 의왕 원유관이 2013년도에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일괄로 복식이 문화재로 다시 지정되는 것 자체는 전체를 봤을 때 국가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전체를 보는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명칭인데요. 의친왕비 복식류 일괄이라고 하면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오륜대순교자박물관에 의왕 원유관과의 관계에서 같은 인물이 의왕과 의친왕으로 표기되어 혼돈을 일으키기 때문에 의왕비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보시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차피 지금 국가 지정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의견만 전달해 주고 문화재청에서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 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 위원

동의합니다.

○ ○○○ 위원

국가로 가게 되면 민속문화재로 가야 하는 거죠?

○ ○○○ 위원장

네. 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민속.

○ ○○○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의친왕 유물이 의왕 원유관이 이미 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레벨에서 같이 가야 하지 않을까. 전체를 합해서 하나로 묶는 방법도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 ○○○ 위원장

번호를 단다든지.

○ ○○○ 위원

그렇죠.

○ ○○○ 위원

스란치마라는 것은 언제 만든 거예요?

○ ○○○ 위원

이것도 이때 당시에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죠. 만들 때 하나만 만든 게 아니고 두 개도 만들기 때문에 그때 같이 만든 것으로.

○ ○○○ 위원

1893년 정도에 아마 두 겹으로 입었을 거예요. 1893년도에 스란치마를 입을 때 안쪽에 있는 것을 입고 겉에 한 번 더 입거든요. 세탁하면서 뜯어내고 나서 반쪽은 다른 데 팔았거나 누구 줬거나 그래서 완전하지 않을 거예요.

○ ○○○ 과장

그러면 이것은 가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옥제금니용문합입니다.

□ <옥제금니용문합>

○ ○○○ 위원

제가 조사를 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뒤에 옥판을 여러 개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8개 옥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옥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고, 그다음에 이렇게 쪽 연결해서 아래쪽과 뚜껑이 맞물린 것은 기

술적으로는 좋은 경우인데 뚜껑 부분이 깨진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테이프가 붙어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어디서 출토됐는지가 알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런 정도의 옥이 그렇게 좋은 옥이 아닌데다가 용도 우리가 봐왔던 일반적인 한국식 용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것은 국가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서울시가 이런 걸 올렸나 하는 얘기를 들을 것 같아서 올리는 것도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 ○○○ 과장

부결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하동 쌍계사의 장승 관련한 내용입니다.

□ <하동 쌍계사 장승>

○ ○○○ 위원

사진을 한 번 보시죠. 특별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장승이라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사진을 한 번 봐주십시오. 생각하는 장승하고 전혀 다르고 밤나무를 뿌리째 뽑아서 거꾸로 세워서 윗부분에 흔히 봉두난발이라고 하는 선머슴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진에는 잘 안 보입니다만 얼굴이라든가 이마에 주름 표시라든가 눈썹을 덩굴무늬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섬세하게 잘 그렸습니다. 잘 봤고요. 예를 들어서 코에 주름도 남자는 크게 그리고 여성은 작게, 그리고 쳐다보면서 오른쪽에 있는 것이 가람선신, 외호선신이라는 것이고 남자형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입구 왼쪽에 있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저기에 전시된 것은 오른쪽에 있는 것이 가람선신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보이는 것이 외호선신인데 민속박물관에서 저렇게 전시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반대로 세우면 모양이 이상해집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랬는데 1966년도에 그때 당시에 장주근 선생님, 돌아가셨습니다만 1.5세대 정도의 민속학자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때 당시에 한 국민속관 개관을 할 때에 쌍계사에 가서 직접 장승을 만들어주고, 그다음 페이지 사진을 한 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위에 있는 두 개 사진이 그때 당시에 왼쪽에 있는 것과 새로 세운 것을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세워놨었

는데요. 세워주고 나서 그것을 민속박물관에 가져와서 민속박물관에서 몇 차례 회의를 해서 전시품으로, 그때 당시에 3만 원 달라고 그랬는데 2만 8,000만 원을 주고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앞 페이지를 다시 한 번 보시면 아래에 있는 사진이 왼쪽에 있는 게 유리건판이고요. 1910년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조선고적도보에 나오는 사진입니다. 1933년 것인데, 1933년까지 이런 형태의 원래의 장승이 있었고요. 그 뒤에 하고 66년 사이에 만들어졌는데 정확하게 이 장승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 만든 장승도 현재는 없어진 상태고요.

이 장승은 제작 연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사모와 족두리 이렇게 되어 있던 기존의 장승 모양하고 장승 모양이 전혀 다르고요. 그다음에 제작 연대도 30년 정도의 인터벌이 있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 만들어졌다는 게 확실하고 그다음에 이 장승 자체가 장승에 대한 민속학적인 해석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을수호신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하나는 이정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에 보시면 쌍계사를 들어가는 입구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쌍계사를 지키는 장승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정표를 표현하는 장승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석문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 길 입구 양쪽에 들어가는 곳에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민속박물관에서 현재 로비에 중앙홀에 전시해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박물관의 항온항습 시스템이라든가 경화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더 이상 훼손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지금 1966년부터 50년 이상 지났는데도 현재까지도 잘 보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가능하다고 조사자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 ○○○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154페이지 사진을 보시면 그 위의 것을 올리는 건가요?

○ ○○○ 위원

위의 것이죠. 위에 것이 우리의 조사대상입니다. 밑에 있는 것은 참고자료이고 뒤에 있는 모든 사진들은 참고자료이고 현장 들어가는 입구 사진이고 그렇습니다.

○ ○○○ 위원

1966년에 만든 건가요?

○ ○○○ 위원

1966년에 만든 게 아니라 1966년도에 쌍계사에 있던 것을 뽑아서 민속박물관으로 가지고 온 거죠.

○ ○○○ 위원

그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장승들이 없어요? 현재에 남아 있는 것들이?

○ ○○○ 위원

전혀 없죠. 실제적으로 경기도에서는 장승이 유명한 곳이 남한산성 밑에 있는 엄미리 장승이 굉장히 중요한 장승인데 20년 못 갑니다. 10년도 못 갑니다. 보통 그렇게 세운 장승은 3년이면 넘기고 새로 만들어서 세워야 해요. 그래서 매년 장승제를 지내면서 장승을 새로 계속 하고 기존의 것은 뒤쪽에서 계속 썩게 그냥 두는 거죠. 1년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밤나무였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갔고요. 그때 당시 만들어준, 새로 만들어준 장승도 1980 몇 년까지 있었습니다. 90년대까지 조사할 때 그 장승이 남아 있었는데 그 사이에 없어졌고, 그다음에 지금 쌍계사 들어가는 개울가를 통해서 옛길로 들어가는 석문하고 그 쌍계라고 되어 있는 돌문이 양쪽에 있는 그 주변이 지금 완전히 상가가 들어서서 옛날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찾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저도 그 근처에 갔었는데요. 제가 다닐 때 90년대 이때 당시 다닐 때하고 지금은 엄청 다릅니다.

○ ○○○ 위원장

우리가 가결을 하면 청에서 다시 한 번,

○ ○○○ 위원

네. 청에서 다시 한 번 심의를 하겠죠.

○ ○○○ 과장

알겠습니다. 가결로 처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등록문화재 관련한 사전심의 안건입니다.

■ 국가 등록문화재 사전 심의

□ <이왕직아악부 오선악보>

○ ○○○ 위원

제 전공은 아닌데 같이 따라가서 구경하는 바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왕직아악부 오선악보입니다. 먼저 오타인 게 있어서 167페이지 글줄에 196번 총 4만 7,750매가 아니고 4,750매입니다. 7자 하나를 빼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만 오타를 잡아주세요. 이 자료가 왜 문화재가 되어야 하는 문제인데, 역사성 이런 게 있습니다. 영친왕 내외가 유럽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서 당신네 나라의 음악을 악보로 보고 싶다고 요청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통 음악사에서는 고전악보는 오선악보가 아니거든요. 그것을 다 오선으로 바꿔라. 오선에다가 채보를 하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해서 그것을 음악학교에서는 악보 번역이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처음에 백우용이라는 분이 촉탁으로 됐다가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그 뒤로 일본인하고 이종태 이런 분들이 참여를 했고 마지막으로 이왕직아악부의 여러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이왕직아악부원 양성소 출신 소장 악사들에 의해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채보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지금 159페이지부터 표에 있는 것은 리스트가 총 196건 200점들이 다 그 내용이고 사진으로도 그 이야기가 보입니다. 그냥 진짜 오선악보입니다.

오선악보고 뒤에 있는 것은 각각에 대한 해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지 자체가 두 종류의 용지로 별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이왕직아악부라는 게 표기가 되어 있는, 인쇄가 되어 있는 용지이고요.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역사성이 있어서 이것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의미 부여를 하기를 우리나라 궁중음악의 최초의 근대식 오선악보 채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이고 당시 음악을 집대성한 아카이브적인 의미가 크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냥 종이에 오선 그려진 것으로 봤는데 음악학 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귀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유물로 판단되고 국가등록문화재로 했으면 좋겠다.

- ○○○ 위원  
궁금한 것은 필사본인가요?
- ○○○ 위원  
오선악보 자체는 인쇄가 되어 있고 그 위에 하나씩 다 그린 거죠. 채기를 한 거죠.
- ○○○ 위원장  
사진을 보니까 다 손으로 그린 거네요.
- ○○○ 위원  
종묘제례악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될 수 있겠네요.
- ○○○ 위원  
이것 수량이 표에는 4,775매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4,750매. 뒤에 조사 결과에 보면 좀 달라서 정확하게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 ○○○ 위원  
196권 200점도 있고 4,775매도 있고 뭔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 ○○○ 위원  
통일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 ○○○ 위원  
4,750으로 통일을 한 거죠?
- ○○○ 위원  
4,775로 통일입니다. 7를 빼는 게 아니라 제가 0를 하나 더 넣었네요. 죄송합니다.
- ○○○ 위원  
그러니까 167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분량이 오선보 정리된 것이다 하는데 거기만 0자 빼면 되겠네요.

- ○○○ 위원  
제일 앞에 수량도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 ○○○ 위원  
제일 앞에도 200점이라고 되어 있네요. 점하고 매수하고 다를 수 있어요.
- ○○○ 위원  
책자는 200점이 맞대요.
- ○○○ 위원  
교수님, 사전에 보면 백우용은 1950년에 죽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국악대장을 했는데 그것도 한 번 확인해보십시오.
- ○○○ 위원  
사망연도는 확인해보겠습니다.
- ○○○ 위원  
사전에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 ○○○ 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75페이지 이해경 황손 장신구 건입니다.

□ <이해경 황손 장신구>

- ○○○ 위원  
이것은 이해경 황손 장신구인데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의친왕의 다섯째 딸 이해경 씨가 실제 사용했던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새앙머리댕기 하고 원앙 노리개 두 건으로 2건 2점인데요. 사진에 보면 왼쪽에 나오는 게 새앙머리인데 뒤에 댕기머리 할 때 사용했던 것인데요. 2003년도에 기증을 할 당시에는 끝에 달려있었던 곡옥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2009년도에 그때 당시에 달려있던 것과 가장 유사하다고 해서 경운박물관에서 새로

갖다 붙였어요. 그런 것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원앙 노리개는 처음에 돌복에 착용을 했다는 것인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저기 위에 보시면 양쪽에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새가 있는데 저 새를 2022년도에 의친왕과 황실의 독립운동이라는 전시회에서 봉황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전시를 할 때요. 원앙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해경이 돌복에 패용했는데 금으로 만든 원앙 노리개로 의친왕의 여섯째 아들 이곤의 혼례 때 당의에 패용했다는 이야기를 그때, 빌려주고 사용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사용을 했던 그런 것은 확실한 기록이 나오고요. 이게 원앙 혹은 봉황 한 쌍이 마주보고 있는 형태로 제작한 단장 노리개이고 새의 날개 부분에 비취장식이 되어 있는데 노리개라든가 저런 것들이 혼례라든가 이런 것에 사용되고 저렇게 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봉황보다는 원앙 쪽이 가깝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기는 한데 지금 이 부분이 사실 보니까, 그다음에 원형은 현재로서는 아까 그것 자체는 만약에 지정이 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붙인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를 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그때 당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영친왕 일가의 복식이라든지 국립고궁박물관에도 있고, 이해상 내외 상복과 같이 이해경 장신구 정도로 이름을 붙이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나중에 전체를 이야기할 때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저것을 원앙으로 할 것인지 봉황으로 할 것인지 검토가 돼야 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 ○○○ 위원

봉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원앙에 가까운 것 같은데.

○ ○○○ 위원

그건 올리면 그쪽에서 조사하면서 알아서 하겠죠.

○ ○○○ 위원

그래서 저도 이런 데에는 봉황이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봉황보다는 원앙이라고 보는데 모양도 원앙에 가깝게 보이죠. 사실 봉황은 이런 모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 ○○○ 위원

이해경 씨가 이것을 계속 갖고 있었대요?

○ ○○○ 위원

계속 가지고 있고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 ○○○ 위원

저 사람이 콜롬비아대학에서 한국도서관 사서를 한 사람인데,

○ ○○○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 ○○○ 위원

여기 중간에 왔다 갔다 했지만 그 오랫동안, 지금 나는 앞에 것도 그렇고.

○ ○○○ 위원장

경기여고에 기증을 했고요.

○ ○○○ 위원

경기여고는 2003년인데 그전에 이 사람이 미국에서 계속 있어요. 그런데 저걸 다 갖고 갔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 ○○○ 위원

그 부분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 위원

여기에도 무슨 황손 하는데 의친왕까지는 그게 명칭이 되지만, 그런 용어는 있을 수도 없고 이 의친왕 아이가 40명이 넘는데. 의친왕 부인이 많아요. 부인도 아닌 사람도 많고. 아마 이해경 씨 어머니는 교환수였던가? 사동에 전화가 있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이것을 이해경 그분이 물론 의친왕의 딸이라는 것은 다 알지만 이런 것으로 해서 뭐가 될 수 있는 건지 난 조금... 그런 생각이 드네요.

○ ○○○ 위원장

여기서 황손 장신구라는 것은 신청자가 올린 제목이에요. 저희가 그것을 다 하지는 않습니다.

○ ○○○ 위원

그래서 그냥 이해경 장신구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황손 장신구가 아니라 이해경 장신구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 ○○○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경 장신구가 그때 다른 게 남아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은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이해경 씨가 냈다고 해서 할 일이 아니고 경기여고에서 박물관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거기는 조금 과장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를 보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그냥 이해경 씨가 내놨다고 해서, 그것을 경운박물관 거기서 올렸다고 해서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 위원장

그런데 아까 옷도 나왔잖아요. 복식도 나오고 이 두 건이 다 문화재청에 민속분과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이것에 대해서 합해서 논의가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문제도 논의가 될 거예요.

○ ○○○ 위원

일괄 조사라는 개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 ○○○ 위원

그 앞에 것은 확실하게 의친왕비 것이라고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은 시기도 그렇고 조금 떨어져서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 위원

위원님, 아마 최근에 문화재청이 그동안 민속문화재를 지정을 안 했어요. 한참 동안. 그래서 이 근래에 시도로 다 내려보내서 시도에 그동안 지정

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이번에 올리라고 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이것도 같이 올려서 문화재청이 지금 받아보면 아마 전수조사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올리고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 위원장

네. 좋은 생각입니다.

○ ○○○ 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결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건 179페이지입니다. 안병소 제작 바이올린 건입니다.

□ <안병소 제작 바이올린>

○ ○○○ 위원

사진에 보이는 저분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로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요. 독일에서 유학을 했고 1935년부터 1938년까지 3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독일에서 아주 유명한 바이올린 제작자 아르민 노이만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바이올린 제작기법을 신청자 표현으로는 전수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보면, 사실 뒤에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만 바이올린 내부에 안병소 제1호 작품이라고 독일어로 쓰여 있습니다. 소리통 안쪽에 붙어있어요. 그것을 보고 안병소가 만든 제1호 작품이라고 하는데 이분에 대해서 그때 3명이 조사를 하면서 한 분은 무조건 지정을 해야 한다. 나머지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사람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오래 되었고 1점 밖에 없다. 대표성 조건이 지금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주 괜찮은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182페이지 쪽 적어놨습니다만 182쪽 내용하고 183쪽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몽똥그려서 이야기를 하자면 독일 노이만의 기술을 배웠다고 해서 3년 만에 이것을 만들 수 있는 게 공예사든가 이런 데서 봤을 때는 정말 공예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들으면 기분 나빠할 수 있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논의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미 노이만이 판들을 다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것을 조립해서 하나의 기념으로, 여

기에 와서 그 바이올린을 연주자인데 와서 하니까 기념으로 좀, 그런 게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안병소가 제작한 바이올린 2호, 3호가 있다고 해야 하는데 그 관계를 확실하게 알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안병소의 장남으로부터 기증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문제가 심각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1939년도에 만주에 있는 신징음악원 악장 및 독주자로 취임을 했죠. 1941년까지 만주국에 순회공연을 하면서 만주 찬양가를 많이 불렀다는 얘기가 나오고 창씨 개명을, 일본말로 찾아보면 안 나오는데 안병왕소로 개명했다는 것이고요. 안병소 선생이 바이올린을 노이만으로부터 만약에 기술 전수를 했다면 우리도 문화재 전수하면 증서라든가 나름대로 그 가문에서 내려오는 그런 거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악기제작소의 공식 심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도 붙어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증서는 없다 하더라도 그 안에 뭔가 붙어있든가 이래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음악가로서는 충분한, 바이올리니스트로는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과연 이분을 바이올린 제작자로 해서 의문의 소지가 있는 바이올린을 지정해야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세 사람의 의견이 합치가 되지 않아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 위원장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조사자들의 의견이 통일이 돼서 일치가 되어야만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사 당시에 네 분이 가셨는데 의견이 같지 않았고 통일이 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고 어려운 것이죠. 이것은 부결이라고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 ○○○ 위원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 ○○○ 과장

부결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지정 문화재 지정심의입니다.

■ **서울시 지정문화재 지정 심의**

- <악학궤범>
- <채용신 필 오계업 초상>
- <내교인·소내교인>

지난번에 사전심의 때 했던 세 건에 대해서 이번에는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절차입니다. 지정예고를 했는데 따로 의견은 없었습니다.

○ ○○○ 위원

동의합니다.

○ ○○○ 과장

알겠습니다. 이 세 건에 대해서 지정심의 가결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두 건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서울시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 **2024년 서울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선정 검토**

- <도선사 목 아미타불·대세지보살상>
- <도선사 석조관음보살좌상>

○ ○○○ 위원

제가 갔다 왔기 때문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선사에 있는 것이고요. 시 유형문화재입니다. 보존처리 보수정비 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에 있는 게 3억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요. 두 점에 대한 개금 처리를 하는 것하고 보존상태 정밀진단을 하는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현지에 가서 조사를 했는데 사실 목불들은 대부분 나중에 카슈로 한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금박이 조금씩 벗겨지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개금을 3억씩 들여서 개금을 하는 것은 조금 과다하지 않나. 아직 할 때는 아니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해 주면 사실 서울시에 있는 목불 대부분을 다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 ○○○ 위원

개금을 해 줄 필요는 없죠. 보존처리를 해 주는 거죠. 개금이 보존처리의 의미는 아니잖아요.

○ ○○○ 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벗겨내고 새로 개금을 하겠다고 올라온 겁니다.

○ ○○○ 위원

현상변경이라면 모를까, 개금 자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존처리 개념과 다른 것 아닌가요?

○ ○○○ 위원

지금 같이 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올라오면 다 벗겨내서 안쪽에 균열이 발생했는지 이런 게 있으면 균열 메움 처리하고 옷칠로 다시 개금을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개금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다음 것도 도선사 것인데요. 이것은 석조관음보살좌상인데 보관 위쪽이 아마 이동하면서 살짝 깨진 것 같아요. 이것도 카슈로 한 것으로, 분석을 안 해봐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걸로 해서 만지면서 약간 벗겨진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상태는 굉장히 양호했구요. 그래서 이것은 보관 부분만, 지금 불석으로 보이는 그런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만 수리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마 하면서 정밀진단도 같이 해보자고 해서 금액이 1억 5,000 정도 올라왔었는데 2,600 정도로 한 것 같거든요. 그 금액은 사실 문화재 수리기술자가 책정을 하는 것이어서 제가 금액을 얼마 하라고 하는 것은 어려워서요.

○ ○○○ 위원장

우리가 보기에 이 보관 정도도 이것도 액수가 큰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 ○○○ 위원

그래서 보관만 하면 이 정도 금액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불석에 대한 엑스레이를 찍는다든가.

- ○○○ 위원장  
지금 정밀진단이 필요한가요?
- ○○○ 위원  
사실 불석은 이것만 눌러봐도 딱 한 번에 아는데.
- ○○○ 위원장  
목조면 정밀진단이 의미가 있는데 불석에 정밀진단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 ○○○ 위원  
목조면 분명히 필요한데 이것은 좀... 여기서 논의하셔서.
- ○○○ 위원장  
이것은 정밀진단을 빼고 그냥 보관만 해서 액수를 더 줄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 과장  
그런데 여기 신청자가 큰 금액을 신청했다가 많이 줄어든 거라 이쪽에서 거기에 대한 민원은 조금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 ○○○ 위원장  
그런데 신청한 액수가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 위원  
불석을 복원한다는 거잖아요.
- ○○○ 위원장  
네.
- ○○○ 위원  
복원해서 칠한다는 건데 불석을 어떻게 복원을.

○ ○○○ 위원

깨져서 날아간 거 아닌가요?

○ ○○○ 위원

사실 이 윗부분에 모양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다른 것들 예전 것을 참고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있습니다. 불석을 똑같이 해서 붙인 다음에 그 위에 금을 하는 방법 아니면 수지로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 ○○○ 위원장

사실은 불석을 똑같이 해서 거기에 맞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 사실 훨씬 힘든 일이고요. 비용도 더 많이 들면서 효과도 덜 나요. 수지가 더 좋은 정답일 것 같아요.

○ ○○○ 위원

수지가 훨씬 편하죠.

○ ○○○ 위원

수지로, 어차피 보관이니까.

○ ○○○ 위원

작업하는 것은 수지가 훨씬 편하고 하기도 쉽고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 ○○○ 위원장

네. 공사비도 절약되고요.

○ ○○○ 위원

네.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 ○○○ 위원

다시 한 번 금액을 내라고 하면 어떨까요? 정밀진단 빼고 수지하는 것만

해서.

○ ○○○ 위원

그 부분만요?

○ ○○○ 위원장

네. 정밀진단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라 그것은 불필요하다고 시에서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 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밀진단을 덜어내고 금액을 산정해서 확정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 위원장

끝났네요. 세 시간을 했네요. 애쓰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차 문화재위원회 동산분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